

올교련 2020-01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 창립 1주년 기념 자료집



올교련의 1년 자료집을 엮으며

올교련.

이름도 낯선 희한한 단체를 만들어보기로 한 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그럴듯한 창립대회 같은 건 접어두고, 현장의 교사들끼리 모여 가장 듣고 싶은 강의,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우리의 시작을 다지자고 뜻을 모은 후 그렇게 올교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경제, 탈원전, 페미니즘 그리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

이런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의 열망을 모아 그 분야의 최고 전문 지식인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며 저희들의 첫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젠 검색창에서 올교련을 검색하면 구글창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빙의 창에서도 제일 위에 뜹니다. 네이버에선 몇 줄 눈을 돌리면 찾을 수 있습니다.

The image shows two search engine results for the term '올교련' (Olgyeol). The top section is a Google search result, showing the search bar with '올교련'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tabs for '전체' (All), '이미지' (Images), '동영상' (Videos), '지도' (Maps), '뉴스' (News), and '더보기' (More). The search results show approximately 130,000 results in 0.37 seconds. The first result is from thenature.or.kr, titled '올교련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Olgyeol - National Teachers Union for the Right Education). The second result is from www.youtube.com, titled '올교련을 소개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입니다 ...' (Introducing Olgyeol. This is the 'National Teachers Union for the Right Education').

The bottom section is a Microsoft Bing search result, showing the search bar with '올교련'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tabs for '전체' (All), '이미지' (Images), '동영상' (Videos), '뉴스' (News), and '지도' (Maps). The search results show 88 results. The first result is from thenature.or.kr, titled '올교련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Olgyeol - National Teachers Union for the Right Education). The second result is from thenature.or.kr, titled '고등 - 올교련' (High School - Olgyeol).

The bottom section also shows a snippet from a news article titled '올교련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 NATURE' (Olgyeol | National Teachers Union for the Right Education | NATURE) dated 2020.02.24. The snippet discusses the introduction of Olgyeol and mentions a political bias survey.

학교 현장에서의 팍팍한 여건에 굴하지 않고 서로 보듬고 격려하면서, 힘든 고개는 어깨를 얼싸안고 그렇게 그렇게 1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저희들이지만 꺾이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본질 앞에 냉정하고자 했고, 교사의 사명 앞에 가슴 뜨거워지고자 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하며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되묻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크게 무리 짓는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기보다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있어야 할 곳에 서려 하며 1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저무는 2020년.

교과서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지 공부하려 했던 계획이 무너져 허탈했던 1월, 그 시작 무렵을 건너 이제 돌잔치 한번 해보려 했던 소박한 계획도 어이없이 취소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두를 위해 대면 모임은 기꺼이 물러섰지만, 그간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소하게 움직인 궂적들은 불품없을지라도 엮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각자의 달렌트는 달라도 작은 솜씨를 내어놓아 보았습니다.

교사이니 수업자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도 저희 고민의 흔적들이니만큼 공유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지만 2년도 되고, 5년도 되고, 10년도 이어갈 것입니다.

이름도 법적 울타리도 아직은 없는 그런 작은 모임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의 교사입니다.

2020년 12월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 대표 조 윤 희 올림

차 례

올교련의 1년 자료집을 엮으며 0

제1부 올교련 소개마당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의 어제와 오늘 1
교육 자유화 선언 3
올교련, 1년간의 발자취 6
교사, 개인인가 단체인가, 당신의 선택은? 9

제2부 올교련 이야기마당

뉴욕에서 온 축하의 글 18
아틀리에 드 블루 19
너무 오고 싶은 곳, 너무 떠나고 싶은 곳 20
현직교사가 혁신학교 등 현장에서 본 민주시민 교육의 폐해 22
교사가 본 한국 공교육의 이중성 27
공산국가의 교육자료에 가까워진 대한민국 초등 사회 교과서 31

제3부 올교련 토론마당

대한민국에서 교사하기 34
보수주의자의 양심 39
역사교사로서 바라본 1910-1945년의 한국인 사회 42
우파 역사교사로 살아가기 47
올교련이 뽑은 2020년 최고와 최악의 교육소식 52

제4부 올교련 자료마당

읽을 자료1. 카드 뉴스로 만나는 올교련 59
읽을 자료2.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연구회 ABC 61
수업 지도안 - 초등1 (초등3 도덕과) 63
수업 지도안 - 초등2 (초등5 국어과) 65
수업 지도안 - 중등1 (중학3 도덕과) 73
수업 지도안 - 중등2 (고등2 윤리를 기반으로한 통합과) 77
수업 지도안 - 중등3 (고등 Extensive Reading Lesson Model Plan) 79
올교련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 300(초등학생) 87
올교련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 300(중학생) 90
올교련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 300(고등학생) 94

제1부



올교련 소개마당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 (올교련-<http://thenature.or.kr/>)의 어제와 오늘

- 2020년 2월 3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이하 올교련, National Teachers Union for the Right Education (NATURE))이 공식 출범했다. 남들 다 한다는 그럴듯한 창립대회 같은 건 접어두고, 현장의 교사들끼리 모여 가장 듣고 싶은 강의,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우리의 시작을 다지자고 뜻을 모은 후 올교련이 시작된 것이다.
- 오늘날 암담한 대한민국 교육 현실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교육 불신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2019년 KED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79점에 불과 했다. 교사의 정치편향 민원도 놀랍다.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접수된 민원건수는 9배 증가한 300여건 이었다. 가르치는 학생들의 변화가 가파르는데 반해 교권은 추락하고, 여러가지 민원 고충으로 학교를 떠난 교사들이 3년간 18,681명이나 된다.

교사들의 바람은 단 하나, 우리 역시 교사이며 동시에 학부모이니 만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였으며, 교사들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시금 세우기 위한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사의 교단에서의 자유와 자율권을 확보하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교단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현장 교육자로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한 현장교사들이 모여 출범하게 됐다.

- 1월 31일(금) ~ 2월 1일(토) 양일 간 진행된 창립 워크숍에는 전국의 60명 교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교육 현안들에 대

응해 올바른 교육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단체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워크숍에는 시장경제, 탈원전, 페미니즘, 왜곡된 역사교육과 관련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현 시대에 필요한 교육 철학과 방향에 대한 강연이 실시되었다. 이런 자체연수를 통해 공식 출범하게된 올교련은 현재 전국에서 모인 현직교사 100여명이 모여 함께 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민하며 자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자료로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

- 현재 올교련에는 교단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상시 상담할 수 있도록 위한 자문 변호사도 모셨으며(법무법인 가온의 000변호사), 교육적 사안들에 대해 그때그때 마다 입장을 밝히거나 성명 등을 제안해왔다. 올교련은 아직은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는 아니나,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의견을 내시며 우리의 생각을 모아가며 완성시켜 나가는 단체이다.
- 올교련의 단체 성격을 잘 드러내는 선언문을 통해 동조직이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다.

교육 자유화 선언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교육은 표류하고 입시는 출렁이며 표를 의식한 사탕발림이 난무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 등 교육 정책자들은 학생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학문적 지식은 '주입식 교육'으로 매도하였고, 경쟁을 통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본연을 버리고 획일적으로 평등해질 것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은 심각하게 추락하였고 하향평준화 되었다. 또한 교육당국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부를 안겨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가르치려는 것을 이념 편향적이라고 왜곡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당국은 과학교, 외고, 자사고 등을 축소하고 소위 '혁신교육'을 보편화하겠다고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하였다. 이에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이하 올교련)'은 교육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의 자유화를 선언한다.

1. 자유,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알리는 교육의 자유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 길로 나가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은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함을 알기에 존중할 것이다. 자신의 힘과 땀의 가치를 아는 인간으로 길러내야만 집단을 우선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한 자유를 토대로 한 자유시장경제야말로 해방 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현행교육과정은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신 자유시장경제의 한계만을 지적해 학생들로 하여금 반시장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개편하여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가능성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늘려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2.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이 받을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교육에서의 선택권은 교육이 발전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학생 개인의 진로도 학부모의 교육관도 다양하며 이런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때 이러한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의 가치를 왜곡하여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처럼 되어 있다. 특히 사학법의 경우 사립학교의 설립을 방해하는 수준의 규제로 가득 차, 뜻있는 교육가들이 뜻을 펴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학교를 향한 국가지원금 비중을 낮추고 교원임용과 급여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립학교에는 각종 규제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과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물론, 계급론을 바탕으로 하는 편향적 교육을 배척할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유물론, 계급론은 개인의 자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을 계급의 대변인, 물질적인 환경 조건에 종속된 존재로 취급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 존엄함과 양립할 수 없는 사상이다.

그러한 편향된 생각이 남녀의 성별에 대한 인식도 성별을 떠나 개인으로서의 자유, 존엄, 책임을 가르쳐야 함에도 극단적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페미니즘 사상을 기저에 깔고 있는 교육내용은 남학생들에게는 죄책감을, 여학생들에게는 피해의식을 주입하며 성별을 계급화하며 사회의 갈등을 부추긴다. 유물론, 계급론으로 학생의 자유와 존엄을 말살하는 왜곡된 성차별 교육은 마땅히 교육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4. 학생이 교실에서 누릴 수 있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광기로 가득 찬 반일감정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리 혐의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탄압한 부끄러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대신 진영논리에 입각해 임무를 방기했고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들고 일어나야만 했다.

특정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자신의 정치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일이 이 땅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법으로 보장되고 보호받는 수업시간을 특정 정치사상을 옹호하는데 유용(流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마땅히 누려야 할 사상의 자유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학생들이 교사와 다른 정치사상이나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공포에 떨게 해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20. 6. 25.(목)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

올교련, 1년간의 발자취

★ 올교련 활동 내용 ★

<올교련 출범 관련 기사>

1. 유튜브소개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NIU33vJ0u8>
2.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497593>
3.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0738>
4.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052840i>
5.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23>
6.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66>
7. 문화일보: <http://naver.me/FkbHipLr>
8. 교육과시민: <https://www.edunctn.com/mobile/article.html?no=16468>
9. 교육잇다: <http://www.itdaa.kr/news/articleView.html?idxno=4576>

<교육자유화 선언 발표>

1. 신백훈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WHNxp4FUdGI>
2. 와이타임즈: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394&mcode=m22q90v>

<교육 바로잡기 운동 전개>

1. 광주 금호고 신입생 과제문제 사전 저지(문화일보):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416502?sid=102>
2. 인헌고에 졸업축하 현수막(펜앤드마이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10>
3. 北 강제노동을 '방과 후 활동'으로 미화... 통일부 "함께하자" 카드뉴스(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04/2020110400113.html>
4. 조희연 교육감 발언 파장 확산...교총·전교조 등 성명, 청원 1만명 넘어(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81>

5. 학교엔 일 안해도 돈 받는 그룹, 안하면 돈 못받는 그룹 있다" 조희연, 교육계 지탄에 결국 사과(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30>

6. [만18세 선거권] "준비 제대로 하고 합시다"...선거연령 하향 안착 교육 집중해야(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0>

7. [단독] 부산교육청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취소...경기 "협약 중", 전북 "변경 계획 없다"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68>

8. 가족 출입금지... 재택근무 황당 규정에 교사들 반발(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0901071039345001>

9. 우리 아이들의 역사교과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정경희 교수 (펜앤초대석: 3월13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65>

10. '엄중 문책' 부산교육청 빠른 수습..."과도한 표현 사과"(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98>

11. [에듀인 현장] '호기심 천국(?)'으로 가려는 초등 성교육, 적절한가(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37>

12.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뉴욕(New York City)의 현실(feat. 뉴욕 유학생):

<https://www.youtube.com/watch?v=uHX6ZuLh8Rs&feature=share>

<마스크 수거에 관한 올교련 성명 발표>

1. 교사 연합 단체 '올교련',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을 사지로 내모는 졸속행정에 대해 해명하라"(데일리에이치): <http://www.dailyh.kr/news/articleView.html?idxno=23>

2. 마스크 수거 교육부 해명에도...올교련·교총 비판 이어져(에듀인뉴스):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91>

3. 교사모임 '올교련', 마스크 걸어가겠다는 교육당국에 "학생들 사지(死地)로 모는 졸속행정 해명하라"(msb):

http://www.msba.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606&page=224&device=pc

4. 일선 교사들, 교육부의 마스크 수거 조치에 대해 비판 성명(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948&Newsnumb=2020038948

5. 우왕좌왕 교육부...학교 비축 마스크 수거 않는다(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2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에 대한 올교련 입장표명>

1.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판결(thewordnews):
<https://www.thewordnews.co.kr/mobile/article.html?no=23095>

<올교련 교사 관련 출판>

1. <문명고, 역사지킴이 77일 백서>...2017년 문명고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나(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00>
2. [화제의 신간] 30년차 교사의 '바른교육' 분투기 <경쟁 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다>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53>

<올교련 소속 교사 칼럼>

1. 조윤희: 유니샘의 교실이야기(펜앤드마이크), 에듀인 뉴스 기고 등
-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42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7>
2. 배민: 배민 칼럼(에듀인 뉴스), 펜앤드마이크 기고 등
-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21>
3. 박석희: 박석희의 교육원정대(에듀인뉴스)
-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71>

★ 기타 - 올교련 검색시 유의사항 ★

1. 올교련: '올해.... 교련 검열시..'와 같은 검색도 나옴
2. 조윤희: 배우 '조윤희'와 착각하면 안됨
3. 배민: '배달의 민족'보다 더 잘나가는 배민 쌤이 되시기를..

★ 올교련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forms.gle/awwkBTmugDrHpbwU7>

★ 올교련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10-512-874814 이00

교사, 개인인가 단체인가, 당신의 선택은?

처음 교단에 서시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런 풋풋한 '첫날'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초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틈엔가 교직이 남루해지고 사람들은 교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는 지쳐갔습니다.

교사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지금은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텅굴다 못해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갈 지경이지요.

나 혼자만 수업 잘하고 교실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 '개인'만으로 힘든 교육현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단체나 조합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가 분명한 조직 속에서 개인으로 맞서고, 개인의 지위만으로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고 해결하기에 현실은 여건이 녹록지 않으며 너무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무책임했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교원능력평가는 아직도 변할 줄 모르고 있으며, 표풀리즘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많이 향상된 반면에 교권의 추락은 바닥을 모를 지경이구요. 교사들의 실질적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수석교사제는 안착하지 못하고 표류 중입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자립형 인간을 길러내야 할 교육은 인성교육이란 이름 하에 형식적인 교육에만 매달려 제대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조차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력과 역량이 무한한 인재에게는 꿈과 기회와 경쟁력을 길러주고, 부족한 기초부터 길러가야 할 학생들에게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실제적 기능과 준법의식을 길러주는 등, 실용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교육현장이 그러한가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공교육 불신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입니다. 2019년 KED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79점에 불과 했습니다. 교사의 정치편향 민원은 또 어떻구요.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접수된 민원건수는 9배 증가한 300여건 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의 변화가 가파르는데 반해 교권은 추락하고, 여러가지 민원 고충으로 학교를 떠난 교사들이 3년간 18,681명이었습니다.

시대는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연구하며 준비할 교과내용과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산적해 가는데도 혼자 힘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과연구회나 학습공동체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교육대상인 학생부터 학교 현장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직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학습공동체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자 감당하기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을 일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고민,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일을 나누며 함께 간다면 덜 힘들고 차츰 교사로서 보람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직이 보람되고 교사가 행복해야 교단이 든든해지고 그 든든한 교단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함께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사 단체 혹은 교사 노조

그래서 단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교사들이 모여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같은 단순 이익단체로서의 단체가 있고, 교사의 노동권을 인정하여 조합으로 승인받은 교사(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청)'에 등록된 교사(노동)조합은 2020년 기준 현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 교원 노동조합(한교조) 그리고 대한민국 교원 조합(대한교조) 총 4개 입니다.

물론 교사단체들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교사(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교사 단체들은 교섭권의 성격이 달라 차이가 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올교련은 현재 아무런 법적 울타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임의 단체의 형식조차도 갖추지 않은 단체여서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단순 동호회나 혹은 동

아리 형태의 단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회원들의 안전과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히 보여 이런 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핏 보아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의 '교섭협의권'은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노조의 '교섭권'은 강제력이 있고, 일반단체의 '교섭협의권'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내용을 '단체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 역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칙 조항이 있을 만큼 강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부나 교육청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92조 '단체협약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작동될 수 있는 조합 중 하나가 대한교조입니다.

대한교조는 이미 존재하는 교사 (노동) 조합이고 우리 올교련 회원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수용 가능한 기조와 목표를 추구하는 교사단체여서 소개해 올립니다.

● 노동자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이야기

대한교조라는 단체는 실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2008년에 창립되었거든요. 그러나 초심이 방향(?)을 좀 하다가 이제 다시 궤도에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조도 소속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근거법은 노동조합법과 교원 노조법이구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노조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타 조합은 교원 '노동'조합을 표방하자만 대한교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하느냐고요?

대한교조도 노조가 아니냐고요?

이제 '노동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늘상 생각해 왔습니다. 교사들이 노동자라면 사용자는 누구란 말인가. 학교 내의 관리자와 교육청이 그럼 사용자인가? 학교 관리자도 월급 받고, 교육청 장학사도 월급 받는데? 그분들은 또 교사의 '적(?)'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 역시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노동자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노동자 (勞働者)[명사]

1.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통상 노동자라고 할 때는 '임금 노동자'를 두고 이야기 합니다. 교사는 특히 육체노동만으로 임금을 받지는 않으니 2번의 의미로는 노동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번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대개가 노동자인 건 맞겠지요. 하지만 교장, 교감이나 장학사분들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교사와 동일한 노동자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까지도 사용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 있더라도 혹은 같은 교육 관련 직무를 임금 받고 수행하더라도 같은 노동자로 볼수 없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일반 기업에서도 보통 '과장급' 이상부터 차장, 부장, 심지어 임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와 유사할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계는 일반 기업과 다른 특수한 영역으로 구분해야 할지 모르지만 같은 율타리에 근무하는 같은 임금 근로자라고 해서 관리자와 평교사가 수평적인 관계 하에 살지는 않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과를 담당하는 역할에서만 평등할 뿐이지 일반 업무분장에서의 지위는 분명 위계가 존재합니다. 학교만큼 위계가 분명한 관료적 조직도 드물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일반 기업의 조직 형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교직에 적용하자면, 교사의 경우는 임용을 한 '임용권자'가 분명히 있고, 그 임용권자들의 지휘·명령에 따라 우리 '평교사'들이 움직이게 되지요.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조직에서는 '임용권자'로 볼 수 있으니,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정도로, 사업의 경영담당자 혹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는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그리고 교장, 교감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대응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자의 부

당한 지휘·명령에 노동자가 항의하듯, 평교사는 교육청과 관리자의 부당한 지휘·명령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상당부분 평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부당함과 억울함의 태반은, 관리자의 권위적인 태도와 부당한 지시, 교육청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과도한 사업 추진 등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이러한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노조 설립과 활동 등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이 우선 적용되고 교원노조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노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리자가 교사를 불편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고 모든 교육청이 부적절한 업무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같은 평교사들이 항상 편안하고 억울할 일 없고 합리적인 역할에 만족할 일만 있다면 이런 교사조합의 일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조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지닌 교원조합으로서 존재하지만 단순 노동자들의 집합이라는 생각보다는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합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다 단단한 조직력을 갖춘 법적 조직이자 조합으로,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조직이 되려하는 것입니다.

● 교사조합으로서의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이야기

대한교조는 이제 허물어진 교육의 터에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는 마음으로 다시 뛰려 합니다. 지금보다 더 일으켜 세워 혼자보단 둘이, 다섯보다 열이 더 큰 힘이 되고 서로의 생각에 빛이 되어 출것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연마하는 교사들의 단체가 되고자하는 대한교조의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교조의 3대 기조(3 Purposes)

1. 현장 지향 활동 강화 및 교사들의 교권 보호

▲교사의 수업권 보호

▲ 교원노조법의 현실화를 통한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2. 정책조직 활성화 및 교섭권 강화

▲ 교육현안 정책포럼 및 교육정책 협의회 구성

▲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 교섭권 행사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교과 연구 및 교사 연수 활성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이러한 근간을 토대로 대한교조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교조의 5대 목표(5 Goals)

1. 합리적 논의와 합의를 지향하는 교단문화 창출

2. 현장적용과 현안해결을 위한 합리적 교육 정책 연구 및 제안 활동 지원

3.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제고

4.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과 연구

5.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축

공부하는 교사들이 모여 교육을 고민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고 밀어주어야겠습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있는 사람들로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따뜻한! 더불어 함께!’ 같은 마음을 두드리는 슬로건 보다는 냉철한 지성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강령을 높이 들고,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조합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한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7대 실천과제(7 Major Projects)

1. 합리적 단체 협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원조합문화 창출

▲ 교사의 지방직화 전환 반대 의견 전달

2.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평가제의 개선 추진

3.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치유 기구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단위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강화

4. '돌봄'의 현실화

▲ 지자체로의 이관

▲ 초등교사 자격증 보유자들의 시간 선택형 돌봄교사추진

5.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6.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선택권 보장

7. 능동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허브구축

대한민국 교원조합. 지금껏 작은 걸음으로 주저하며 걸었다면 이제 더는 내려갈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교사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일들을 위해 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여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교조는 앞으로 보다 단단한 조직력을 갖춘 법적 조직이자 조합으로,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조직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 올바른 교육을 전하는 조력자.

대한교조가 지향하는 교사상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을 탈피하고 힘을 모아 함께 헤쳐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산적한 문제들이 많으니만큼 집단지성이 줄 수 있는 이점들을 살리는 것이 최선이 되리라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연찬에 매진하는 교사가 되려는 분들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원은 대한교조 같은 노조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의 복수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환영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그리고 그 이상의 교사들이 용기있게 선택하여 아름답게 빛어낼 하모니를 기다립니다.

* 이 글은 현재 올교련 소속인 교사들 중 대한교조의 가입을 권하는, 대한교조의 향후 활동을 소개하는 글로서, 이미 올교련의 회원 중 약 35% 가량은 대한교조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외부에서라도 앞으로 '단체'에 가입을 희망하는 교사는 고민을 공유하며 마음의 위로를 나누는 느슨한 조직으로서의 올교련과 보다 짜임새 있는 합법적 교사 조직으로서의 조합을 원하는 경우 대한교조를 선택, 가입 가능하다. 물론 둘 다 가입하시길 개인적으로 권유해 드린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올교련 대표)

제2부



을교련 이야기마당

뉴욕에서 온 축하의 글

올교련의 1주년을 뉴욕에서 축하드립니다. 올교련이 막 시작하기 위해 첫 모임을 갖던 날을 기억합니다. 한국의 교육을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모이셨던 그 빛나는 눈동자들을 기억합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서 1년이 되가는 지금, 그 빛들이 이제는 작은 햇불이 된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마음들이 좀 더 단단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길고 험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각자와 우리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교육의 가치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랬던 교육계의 희망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교련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고 하시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계의 희망이고 등불이십니다. 저는 비록 부족한 학문의 필요를 채우고자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함께 얼굴 보며 함께 교육계의 비전을 공유할 날을 기대하며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올교련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뉴욕에서 교사 김병화 올림(올교련 회원)

아틀리에 드 블루

누구도 이방인이 되지 않는 곧게 뻗은 도로
비에 젖은 구두로도 갈 수 있는 그의 아지트

화가는 애매한 슬픔을 화폭에 담는다
미드나이트인가, 조도 낮은 전구 아래
푸름은 검은 생각이 되어 가마득한 꿈으로 파묻힌다

그는 꿈에서도 그림을 그린다
어둠과 친하다는 건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
블루 위에 블루를 덧칠하고 다시 딥 블루를 섞어 칠하는 그를
통성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간격에서 바라본다
그의 그림에서 그림자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떠올랐다가
지워진다, 호명한 적 없는 이름들이 가라앉는다
바닥없는, 출렁이지 않는
겹겹이 칠한 무한의 뒷면과 시나브로 벗겨진 침묵의 겉면

화가는 화폭을 밀어 두고 창을 열어젖힌다
희미한 밤인가, 몰아 쓴 어둠 탓에 암묵적인 화가의 밤
별빛이 가여운 밤은 속살보다 깊은 잠이 되어 바다로, 심해로 빠져든다

돌아가는 길은 백지처럼 흔들린다
잠들기 전 책상 밑 각진 어둠을 들여다보고 싶은 구두가
이방인의 발자국을 따라 너풀거린다

2010년 계간 <서시> 신인상 등단작 / 교사 정경봉(울교련 회원)

너무 오고 싶은 곳, 너무 떠나고 싶은 곳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전국적으로 6666명이다. 지난해 1월 6049명에 비해 10.2% 늘어났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신청 명예퇴직자의 수가 확보된 퇴직금 예산을 초과해 신청자 687명 중 93명을 반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다.

“명퇴에 엇갈리는 선후배 마음”

매년 꾸준히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교육계에 결코 긍정적 신호라 할 수 없다. 그 수많은 교사들도 분명 처음에는 교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조건만 충족되면 떠나고 싶은 공간이 돼버렸다는 얘기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의 체벌이 현재보다 자유롭고, 더 이전에는 소수의 교사가 체벌을 무작위로 사용했던 때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인권이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현장은 바뀌어 왔다. 하지만 이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교권의 추락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이제 교육현장에서는 폭주하는 학생을 그 어느 교사도 막을 방법이 없다. 생활지도를 하는데 바로 앞에서 학생이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친다거나, 그런 학생의 화장품을 압수하지 못해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2020년에 매우 흔한 얘기다.

차라리 학생이 교사를 때려 형사 처분을 받게 하고 싶다는 말이 교사로부터 나오는 것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해도 교사라는 직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 교사에게는 교육현장에서 탈선하는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넘어온다.

어려워진 학부모와의 관계도 한 몫을 차지한다. 학부모가 겁이 되고, 교사는 그에 맞춰

서비스를 무한 제공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잘못이 없어도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체육 시간에 매트가 더 폭신하면 좋겠다거나, 군대도 아니면서 왜 오래달리기를 하냐는 식의 민원을 받은 나는 명퇴를 신청하는 선배교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을 챙기느라 놓쳐버린 교권 추락의 민낯이다.

이런 시점에 교·사대생들은 늘어나는 퇴직 교사들을 보며 박수를 친다. 자신의 임용합격과 직결되는 선발 인원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퇴직신청이 는 만큼 임용 인원이 늘기를 바라고 있다. 본인만 합격할 수 있다면 선배들의 퇴직 이유는 크게 중요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입직하고 나면 이내 아이들을 다그치다 지쳐 이제는 빨리 교육현장을 떠나고 싶어진다는 선배교사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예비교사일 때 이론을 열심히 배웠어도 막상 학교에 오면 공격적인 학생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진을 빼는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교직 생활 위한 동기부여 필요”

누구보다 교직을 꿈꿨던 이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보다 교직을 떠나고픈 이들. 이들이 같은 사람이게끔 만드는 현실이 교육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 늘어나는 명퇴자를 보며 박수 치는 예비교사들이여, 향후 몇 년 내에 명퇴를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필요한 건 합격에 다가서는 일보다 오히려 꾸준한 교직생활을 하고 싶게 만드는 보람과 동기부여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을 다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교육신문 기고문, [월요논단] ‘너무 오고 싶은 곳, 너무 떠나고 싶은 곳’」 중에서

교사 심준수 (올교련 회원)

현직교사가 혁신학교 등 현장에서 본 민주시민 교육의 폐해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어느 교사는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선이 달 표면에 인류 역사상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진실보다는 소위 음모론이 더 흥미롭게 들리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별도로 신빙성 있는 자료를 검색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교사의 편향된 교육과 현 정부에 의해 왜곡된 교과서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개념과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만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학교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접목하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1. 흡연, 음주, 마약과 청소년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을 국가가 막는 것은 정당한가? 네덜란드에서는 마약 음용이 개인의 자유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에 실제로 나오는 토론주제 중 하나입니다.

흡연, 음주, 마약은 성인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억제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흡연과 음주를 호기심에 몰래 한 번씩 접해 봅니다. 2016년 10월 동대문구 어느 혁신학교 H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한술 더 떠서 농촌 봉사활동에 인솔했던 학생들에게 먼저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믿으니까 추억으로 모두 한 잔씩 하자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술에 취해서

뛰어다녔고 싱크대가 와르르 무너져내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소위 민주시민 교육의 믿음을 그들은 혁신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실천한 것일까요? 그 학교 학부모들은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2. 세월호 계기교육과 인헌고등학교의 편향교육 고발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은 세월호 참사 계기 교육을 한 교사와 학교의 인권침해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을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2019년 7월에 강서구에 있는 혁신학교인 S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이념 편향 교육을 한 교사 2명을 비난하면서 혁신학교 확대를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사실확인을 하여 준 것에 의하면 해당 교사들은 본인 교과수업은 등한시한 채 세월호 참사 계기 교육을 1년 내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학교 학생들이 박탈당한 수업권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4월 16일만 되면 해마다 빠지지 않고 세월호 추모 행사를 시행합니다. 위에 언급한 학교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하면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임대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시험문제에 출제한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학생들이 무척 우려됩니다.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19년 10월 인헌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사상 주입 교육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을 징계하여 대학입학 허가를 취소시키려다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는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수업권과 인격권을 앞장서서 침해한 아이러니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해 학부모 단체에서 형사 고발을 하였지만, 1년에 걸친 조사 후에 결국 무혐의 판정이 난 슬픈 현실입니다.

3. 현 정부의 국정 홍보물로 전락한 교과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현 정부의 업적을 미화하는 내용이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에 힌 페이지 가득 실려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과 과에 관해서 초, 중, 고 교과서에 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대의 역사기술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세대에 가서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교육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토론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당일 수업 대신 관련 TV 시청을 하였고 교과서에서는 버젓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슬이 퍼렇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일로 교과서가 고유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지 국정 홍보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에서는 '거리에서 성장하는 교복 입은 시민' 표현을 써 가며 초등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데모꾼이 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이에 동조라도 하듯이 2014년 6월 4일 혁신학교인 H 고등학교의 학생 K는 광화문에서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한 사례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부장교사 안 모, 장 모 등이 학생을 부추긴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학교 재학 중인 또래 학생 중에서도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논평을 낸 바가 역시 있습니다.

4. 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정의로운 것인가?

교과서에는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공정무역 이야기] 표현도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의하면 공정무역은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마케팅 수단 삼아 양심적으로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텅다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에 공정무역이 나온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공공연하게 반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이 갑니다.

어떤 전교조 부장교사는 NGO 동아리를 이끌면서 해마다 학교 축제에서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합니다. 2014년 9월 해당 교사가 근무한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축제 수익금을 어느 자동차 노조에 기부하자는 안건이 교직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부장교사를 비롯한 5~6명의 교사가 '좋습니다!'라고 하며 바람을 잡아가는 등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동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언론에 기사화되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자 해당 교사들은 비겁하게도 축제 수익금 노조 기부 안건을 처음 제안한 당사자는 K 학생이라며 발뺌하였습니다. (K 학생은 위에 언급한 바 있듯이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광화문에서 한 바로 그 학생입니다. 해당 학생 K는 교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교무부장 장 모 교사는 학생 K를 특정하여 지지하는 뉘앙스의 전체 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5. 난민 문제를 다룬 뉴스는 가짜 뉴스인가?

본 교사는 2018년 7월에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민 문제로 발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난민 반대 운동'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2018년 봄에 5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된 이슈였으므로 학교 내에서의 각종 교과 수업 중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가짜 난민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짜 뉴스'를 배척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난민을 거부한다는 것은 거의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동격으로 인식되도록 학생들은 무의식중에 사상 주입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을 인정하자는 의견만큼이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범죄율 증가 등의 이유)도 존중받아야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수업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6. 민주시민 교육 교사 콘퍼런스의 문제점

2018년 민주시민 교육 교사 콘퍼런스(11/23~11/24)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반대, 초등학교 데모장려, 청소년성개방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에는 <토지는 개인 소유물일까? 공동 소유물일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가> 등도 토론 수업의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체제가 맞는지 그리고 분단국가가 맞는지 무척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는 <콘돔 전시회 준비위원회> 표현이 교과서에 보이고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권이며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결정권의 인정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의 흡연, 음주, 마약,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이 과연 청소년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결 어

현대가 과거와 비교하여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분유가 모유보다 영아의 건강에 더 이로울 수는 없음에도 모유보다 더 영양가가 높다는 왜곡된 광고를 무분별하게 접한 이유로 초보 엄마들은 모유 대신 분유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광고의 위력은 무서운 것이고 편향된 교과서의 폐해는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도 모유가 분유에 밀려나 버린 상황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 소중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 잡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도 편중된 교육을 마치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혁신학교에서 버림받은 전 전교조 교사 (올교련 회원)

교사가 본 한국 공교육의 이중성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역사교사로서 늘 보는 학생들의 모습이지만 언제나 내 눈에는 정상이 아닌,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학생들은 공부를 '정석대로' 혹은 '제대로' 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즉, 책을 (교과서를) 읽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보다는 체험으로 학습하는 습관이 들어서 일 수도 있고 소위 협력과 나눔 학습에 길들여져서 일 수도 있으나, 글을 잘 읽지 않으면서 지식과 생각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무슨 창의적인 발표나 활동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실 수업과 평가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논쟁적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입시 교육 문제와 관련한 비난의 화살 및 관심의 초점은 늘 '시험과 경쟁'으로 향한다.

모든 지식은 글의 형태로 기록되고 공유되며 검증된다. 기억의 메커니즘이나 뇌의 정보 처리 양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많은 교육학 이론이 난립해 있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철학 방향을 따라 '열린 교실'에 이어 '혁신 학교' 등 뭔가 참신해 보이는 label로 포장된 다양한 학교 수업 모델이 존재하지만, 이는 피상적인 개념이나 형식일 뿐이다.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 글을 제대로 읽고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습 과정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하물며 대학교에 갈 요량으로 입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을 키우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책을 멀리하면서, 오직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은 학생들은 참고서를 줄 치고 외우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동영상 강의는 열심히 듣지만, 정작 교과서를 정독하는 경우는 드물다. 학원 강사들의 동영상 강의는 대부분 참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문제를 잘 푸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많은 학생들의 머리 속엔

애초부터 무엇이 제대로 된 공부인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역사 과목처럼 심지어 인문학 교과목에서조차 교과서는 흔히 찬 밥 신세이다. 대부분의 한국 고등학생들은 역사 텍스트의 독해reading보다는 기출문제 유형을 모방한 문제들을 끝도 없이 풀어 대는 연습을 통해 수능시험 문제풀이 기계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즉, 학생들은 역사를 공부한다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충실히 이해하거나 (교과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체계적인 사고 능력'이나 '비판적 인식 태도', '다양한 생각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 등을 익히려는 모습을 보긴 힘들다. 교육학 이론가들의 갖가지 (주로 흥미 유발과 협동 학습에 초점을 맞춘) 수업방법론들은 인문학 텍스트의 정독이 가지는 전통적인 학습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현실에서 역사 학습에 큰 의미를 갖긴 힘들 것이다.

학생들을 이렇게 만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공교육의 이 중성(정부는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는 입시 기관화하고 있는 현실)일 것이다. 학종(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수시전형의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은 지금까지 늘 정시전형, 즉 소위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입시 체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정시(수능시험)에 대한 교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이해이다. 흔히 얘기하는 한국사회의 '입시에 대한 문제'들도 그 본질을 잘 생각해보면,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정부, 교사, 학생 모두의 인식과 철학의 부재가 문제이지, 학력고사든 수능시험이든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힘들다.

예전 연구수업을 했던 때가 기억난다. 고3 한국사 수업에서 고대의 과학사와 정치사를 연계시킨 내용으로 교과서 내용을 재구조화해 수업을 했었다. 학생들에게 고대 과학에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고대의 정치에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다루는 수업이었는데, 강평회에서 한 교사가 그 내용은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왜 연구수업의 주제로 잡았는지를 내게 물었었다.

하지만, 고3 수업이라 할지라도 수능 위주로 문제풀이 대비를 위한 수업을 하는 것이 과연 학생 개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가령 역사 수업은 오로지 역사 수능 문제 풀이에만 도움이 되게 행해질 수도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적 사고력의 향상이 일어나도록 행해질 수 있다면 기타 다른 교과목 및 수시 대비에도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어떤 수업의 효과를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수능 점수로만 평가한다면 이는 분절적 분석의 한계를 보일 뿐이다. 만일 학교 시험도 정시 대비 수능 유형으로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 아무 고민 없이 기출 모의고사 문제들을 일부 변형시킨 짝퉁 문제들이 버젓이 학교 문제 출제의 표준이 되는 파행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교실 수업과 평가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논쟁적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입시 교육 문제와 관련한 비난의 화살 및 관심의 초점은 늘 '시험과 경쟁'으로 향한다. 하지만 시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입시에 종속된 학교 시험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가르친 것을 확인하는 시험은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학교에서 학생을 '경쟁시키는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는 교사로서의 전문직업성에 바탕을 둔 내 교육 철학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쟁이 불필요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무의미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경쟁이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 경쟁을 없앨 수 있는 교육은 이상적으로는 존재해도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사교육의 본질이 학생이 경쟁에서 이기도록 돕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교육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확립되는 것이 우선이다. 수능 시험 도입 이후 교육부의 교과과정 개선과 교수학습의 방향 정립을 위한 노력은 인정할 만했다.

단순 암기 위주가 아닌 사고력 배양을 지향하는 수업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었고 고교 학점제와 같은 교사의 수업과 평가 전체에 일관된 전문성을 도모하는 정책의 시도는 수궁할 만한 것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껏 공교육의 역할이 마치 '경쟁을 없애는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인 양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에 있다.

그런가 하면 현실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모습은 학교가 학원인 양 학생들을 입시 준비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러니 학원 강사보다 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성 professionalism이 더 떨어져 보이기도 한다. 전문과를 진료하는 의사 진단도 데이터에 기반한 A.I.의 정확성에 점차 의지하게 될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드는데, 학교 교사들이 기업화된 대형 전문 입시기관들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실제로 대학 응시원서에 담임 교사의 도장이 요구되던 과거에 비하면 입시에서 교사의 역할은 이론적으로는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인지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입시에서 자신이 학생에게 도와줄 것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가 입시와 관련해서 학생을 어떻게 '도와야 한다는' 것인가? 사실 그 발

상 자체의 문제를 많은 교사들이 느끼지 못한다. 만약 교사가 그런 식으로 학생 개인의 입시 준비에 담임 교사로서, 교과목 교사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면, 학생부는 이상한 문서가 되어버리며,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그 자체로 학생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금 한국의 학력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재 상황이다.

애당초 학생의 학습과 체험 과정에 대해 성적 외에 다른 부분이 입시에 활용되는 경우 한국과 같은 학벌 위주 사회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입시는 그 본질이 경쟁이기에, 성적 외의 부분을 교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기술한다고 하여도, 그 기술된 내용 자체가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 평가' 자료로서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을까?

가령 누구도 외향적인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에 비해 더 바람직한 성격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 수시에서 유리한 성격과 행동 패턴은 굳이 교사가, 학원 컨설턴트들이 강연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낀다. 즉,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는 다분히 인격 재판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개인적 관계 요소가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 즉 학교교육의 역할은 체험활동 위주의 놀이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입시에 종속된 사교육과의 경쟁도 아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과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고,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 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입안자와 학교교사가 가진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이나 입시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제3의길 기고문(<http://road3.kr/?p=35523&cat=146>)」 중에서

교사 배민 (올교련 회원)

공산국가의 교육자료에 가까워진 대한민국의 초등 사회 교과서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2단원 중 학습 목표와 수업내용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차시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학습내용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 학생들에게 사회 교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능력 중인 하나인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통일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주내용으로 해야지,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관점으로 교과서를 도배하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으니 이 돈이 아까우며 복지로 쓰여야 한다, 남/북한이 국방비를 함께 지출하면 그에 따라 여유 예산이 생겨 복지로 쓸 수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이용하면 큰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한반도 철도를 타고 중국/유럽 여행을 갈 수 있다, 그 외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지상과제인 전범 집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이 타 국가보다 국방비 지출액,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삶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비용보다 그 중요성이 덜한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부국강병을 외면하고 평화만을 외치는 이상주의자들이 들끓는 국가들의 말로는 복지와 인권 따위는 잣더미가 되어버리는 노예화일 뿐이었다. 더욱이 통일 이후에는 국경이 한반도의 허리가 아닌 압록강과 두만강이 될 것인데 다시금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댈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통일 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북한의 지하자원조차 매장량을 떠나 채산성, 순도가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진작 경제성이 있는 자원이었다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서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방치해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는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이 회동하는 사진을 당당히 올려놓고는 남북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라고 제목까지 달아놓았다. 그렇게 노력을 했다더니만 북한은 핵 폐기는 커녕 김정은의 공수침투 훈련지도, 동해안 미사일 발사, 해안포 사격으로 적화통일의 굳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접경지역 소초 발파, 한미연합훈련 등 각종 훈련 축소, 한강 유역 공동조사 등 안보상 요지의 정보를 내놓고 있으면서 정작 문재인은 북한의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평화구상은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일정 수위를 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 다가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남북통일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하여 세계평화와 평화경제를 실현하겠다'라며 '북바라기'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국가의 대통령이 세계 최빈국이며 전범 집단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 그래봤자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자칭 평화주의자를 연기하며 북한의 관심을 받은 것에 집단정신승리를 할 뿐, 세계로부터 받는 망신살은 오직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몫이다.

경제력 차이가 4배였던 동/서독의 통일도 진통이 컸는데, 60~70배 정도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상 과제인 것일까?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탈원전/태양광 확대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저력 중 하나인 원자력 산업을 박살내며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긴 세력들의 작태들을 생각해 보면, 통일 과정/이후에 발생할 막대한 통일비용은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이 거의 부담하고, 종북좌파들의 핵심층인 세대들은 통일을 기회 삼아 자신들만의 지대추구를 위한 또 다른 철옹성을 건설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북한과 한민족을 운운하며 비굴하고 치욕적으로 통일하여 국가의 경쟁력이 나락으로 떨어진 한반도보다는, 강력한 안보와 막강한 경제력이 바탕이 된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라나는 세대 모두에게 월등히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교사 홍승기(울교련 회원)

제 3부



을교련 토론마당

대한민국에서 교사하기

-여러분의 교직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이야기 하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정문 지도를 하러 나온 50대 교사에게 욕두문자를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에서는 즉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상황조사를 마친 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다음날 학부모는 학교에 민원을 넣어 사회봉사 처분이 너무 강함을 주장했고 교육청에 재심 요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교사가 학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을 시도하였다. 정문 지도를 나와서 학생들에 대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 및 교육권을 수행한 것 치고는 교사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고, 몇 주 후 그 교사는 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 둘,

어느 날 교무실에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처음 받은 교무 실무사는 수화기 너머에 들리는 신경질적인 반응과 고성에 질려 전화를 교감과 교무부장에게 넘겼다. 교감과 교무부장은 그 신경질적인 반응과 고성에 일일이 답변하며 진땀을 흘렸다. 어느 정도 상대방의 분노가 풀렸을까?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등 뒤에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다. 항상 열정적이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A 교사의 이름이 들렸고, A 교사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수업을 하는 것 때문에 애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학교가 공부만 안 시키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이며, 선생 따위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그런 수업 방법을 쓸 수 있느냐는 참 충격적인 표현을 들을 수 있었다. 잠시 후 교감은 A 교사를 불러 이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고 수업 방법에 대해 바꿀 수 없느냐는 말을 한다. 교감 나름은 감정도 정제하

고 조언처럼 던진 말이지만 A 교사에게 있어서 그 표현 자체가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 당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리라, 결국 A 교사는 스마트폰 활용 수업을 포기하고 소극적으로 수업하게 되었다.

이야기 셋,

‘참교육’을 실천하겠다고던 모 단체 소속 B 선생님은 오늘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몇 달 전부터 그 선생님이 속한 단체에서 국가가 만드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가 투쟁을 선언한 이후 B 선생은 며칠 동안 수업 시간 내내 현 정권과 일본 정부가 모종의 블랙커넥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의심하는 학생을 “친일 매국노”라는 비난을 하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를 비난하는 투의 말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교를 나오지 않은 오늘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늦어져만 가는 수업 진도와 수업 중 수업 내용 대신 정치 이야기만 하는 B 선생님을 비난하는 중이다. 그 와중에 B 선생님이 맡은 학교 정보공시 업무는 그 부서의 기간제 교사인 C 선생님에게 거의 다 전달된 상태이고 B 선생님은 연가 투쟁이 끝나면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는 약속만을 남긴 채 C 선생님에게 업무 대부분을 떠넘겨 버렸다. 그리고 연가 투쟁이 끝나고 나면 C 선생님의 계약기간은 거의 종료될 것이고, B 선생님은 밥 한번 먹자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몇 년째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된다. 피해는 학생에게 혹은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넘어갈 뿐이다.

이야기 넷,

연말 학교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어느 단체 소속인지 눈에 들어온다. 이번에도 학교 인사위원회는 참교육 표방하는 어떤 단체소속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무런 단체에 속하지 않고 있는 나로서는 이 인사위원회의 결과가 눈에 선하다. 이번에도 지도부장은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이다. 부장뿐만 아니라 학폭계도 그 단체 소속이 아닌 기간제 교사이다. 아니 지도부 전체가 그 단체 소속이 아니다. 그리고 지도부 안전계와 학생회계를 제외한 모든 교사가 기간제이다. 심지어 부장마저도, 그러나 몇 주 후 교육부 공문이 내려와 기간제 교사에게 부장 업무를 줄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

러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단체 소속이 아닌 정교사 D에서 부장 업무가 내려왔고, D는 부장 업무를 맡은 지 1년 만에 명퇴 선언을 하고 만다. 그다음 해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된다. 이것이 그 단체가 학교 내에서 편해지는 방법이며, 학교를 쥐고 흔드는 방법이다. 그 단체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기피 업무를 벗어나고, 자신들은 학생들에 전념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른바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하는 거다.”라는 핑계로 그 단체가 아닌 다른 교사들은 학교의 수많은 업무를 떠맡게 되었고 그 단체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로 정치 편향적 교육을 자행하고 학생들의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정치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방식이 이렇게 열린 것이다.

이야기 다섯,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교무부장이 조용히 부른다. 내 수업을 듣는다는 모 학생의 학부모라는 분이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 온 내용을 조용히 알려준다. 그 학부모 자신도 학교 교사라고 전했으며, 내 수업이 대단히 수능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관과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꼭 전화하고 싶다는 식이었다. 그리고 교무부장은 조용하게 나에게 알려준다. 그 학부모분 교사는 맞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공문 작성 중에 전화를 받았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그대로 말하는 내용을 듣기만 해보았다. 학부모의 이야기는 간단했다. 학교에서 수능 중심의 활동 없는 수업을 하는 것은 학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능에만 환장해서 수업하는 교사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자신은 교사로서 그렇게 되는 모습이 안타까우며, 활동하면서 자녀가 자기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나이가 젊은데 대단히 열정적으로 강의한다는 이야기에 조언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식이었다.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대답해줬다. 선생님 활동하시는 그 단체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체이며,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이 걱정없는 세상’같이 활동해서 더 싫어하고 공교육의 질은 학원강사보다 교사가 더 꼼꼼하고 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해 주었었다. 다행히 민원을 보낸 그 사람도 교사인지라 더 이상의 악성 민원은 없었지만 교육 현장에 저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교육학 박사인 모 교수의 교사들과의 세미나에서 그 학부모와 유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교사가 완벽히 설명을 다하는 것보다 일부만 설명해서 학생이 궁금증을 얻게 해야 한다. 수학 교사가 수학 문제를 잘 풀면 애들이 수학을 못 한다. 교사가 조금은 틀려주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교사

가 스스로 쓸데없이 완벽히 하려고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학생이 앉아서 공부하는 수업은 제일 나쁜 수업이고 학생이 돌아다니고 떠드는 게 제일 좋은 수업이라고 독일에서 박사 과정 밟을 때 들었다.”

“얼마나 한국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와 세미나 하는 교사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학원강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만난 교사들은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실천적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육학 박사라고 교원 양성기관에서 수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짧지만 교사 생활을 하는 기간을 부정당한 기분이라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다섯 가지 이야기를 아무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교사 생활을 하는 매우 운 좋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는 필자의 경험과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을 조합해서 적은 글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사로서 생활하다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교사의 위치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생각만 든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임용시험을 보거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사립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점점 교사에 대한 이유가 없는 비난의 목소리가 매일 커져만 가고, 심지어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돈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치 않았다’, ‘교사에게 하지 않았지만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되지도 않는 발언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교사의 지위란 바닥에 떨어져 더 떨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그 와중에도 자칭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참교육’을 추구한다는 모 단체는 아주 열정적이다. 정권과 손을 잡고 정부의 기조가 마치 정의로운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수업 중에 조국 전 장관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학생들에게 자신들만의 정의를 모두의 정의인 양 이야기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하느라 바쁘므로 인사위원회를 점거하고 기피하는 업무를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연가 투쟁을 운운하며 동 교과의 교사들이나 혹은 기간제교사들에게 밥 한 번 사주겠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입을 씻는 일도 존재한다. 이 와중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기세나 그들에 동조하는 이른바 ‘깨시민’이 기본값인 동료 교사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없거나, 학교의 고된 일에 정신이 없어 그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데

현실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권은 빠르게 붕괴하고, 교사는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 애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그들이 만든 학교 내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천국이다. 그들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후대의 교사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이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한다. 학생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학교가 지옥이 되어가는 셈이다. 카를 포퍼가 말했듯 “지상에 천국을 만들려는 계획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와닿는다.

학교 바깥과 안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도 교사를 바보로 만든다. 교사가 기획하고 만들고 평가하는 모든 일에 민원이 설새 없이 나온다. 심지어는 교사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까지 거의 욕설에 가까운 민원을 보내며, 심지어는 학교에 와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사건까지 악성 민원은 학교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 학교에서 보여주던 모습을 보여주어 학교로 오는 민원이 줄어들었다는 학교 교사들에게는 그저 웃고 넘어가기에는 입안이 씹쓸해지는 이야기 일 뿐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위기를 체감한 젊은, 그리고 건강한 생각하는 교사들이 정확히 1년 전 공덕동 어느 족발집에 모였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년간 고민했던 이야기를 그곳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했고 사전모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다시 모두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교육내용을 만들며, 교사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지를 심도 있게 고민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이 탄생했다. 올바른 교육의 첫걸음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조용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의 첫 돌을 맞이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공정한 교육과 발전을 위한 경쟁이 살아있는 바람직한 교육을 다시금 대한민국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모을 때가 되었다.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라던 포퍼의 말대로 우리는 교육계에 찌든 때처럼 쌓여있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현장에서 와닿는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치료하는 백신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처럼 모두를 망가트리는 수많은 나쁜 교육 조무사들로 부터 말이다.

교사 김동현 (올교련 회원)

보수주의자의 양심

배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배리 골드워터가 재선 상원의원이던 1960년에 저술한 책으로 흑백갈등, 남녀갈등으로 불거진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이 시대적 대의로 떠오르던 1950년대에 민권을 위한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state)의 자치와 개인의 자유 등 미 헌법에서 규정하는 본질적인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것이 보수주의의 위기를 넘어 미국과 전 세계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같은 주제들이 반복돼 더 큰 이슈와 정치적 권력의 구호로 돌아와 큰 영향을 끼치는 지금에는 더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배리 골드워터는 이 책으로 자신의 철학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큰 공감을 얻어 닉슨에 이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때 그 유명한 레이건이 지지 연설을 하게 된다. 골드워터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내걸며 케네디의 뒤를 이은 존슨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하게 되지만 이 책의 메시지는 고전으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며 이후 새로운 세대의 보수주의자들을 기르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 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주의가 옳고 정치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선생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외면하고 존재조차 몰랐던 본질적 가치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교육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우리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된 교육을 상상해보기 위함이다. 이 책은 보수주의가 국민의 삶과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위협받고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영역 중 하나가 Chapter 9에 등장하는 교육(education)이다. 우리는 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 이를 한 번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골드워터는 우리들의 통념을 아주 정면으로 비판한다. 한국 교육계에서는 성전(聖典)으로 자리 잡아 이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상상하기 힘든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이론을 정면으로 공박(攻駁)하는 것이다. 여기서 골드워터는 듀이의 교육 이론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르칠지만 강조하게 했고, 모든 아동이 똑같은 교육(the same education)을 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주장이 우리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재능과 잠재 가능성, 장래희망과 야망을 최대한 실현하고 충족해야 할 교육을 위협했으며 교육이 학생들 각자가 처한 환경에 적응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배우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의 문제를 간과했다고 강하게 이야기한다.

골드워터는 이러한 듀이주의의 오류는 학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주의 교육학의 관점이 등장하는데, 골드워터는 학교가 이전 세대의 문명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적용해 현재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들을 내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듀이의 진보주의는 전통과 문명의 전수를 전근대적인 인습과 교화를 빙자한 세뇌와 강압적 주입으로 등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근대 봉건질서가 전통교육을 강조하던 시대를 지나 인간이 근대 문명을 성립하고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대를 이어 학습해야 하는 시대에선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실제 문제를 강조하고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학습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은 학생이 영원히 학생일 수 없고 어른으로서 세상에 적응하고 배워야 할 고등적인 학문들을 등한시하고 교육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켰다. 이는 주민들의 직접적 자치로 해결되어야 할 교육에 더욱 큰 능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연방정부가 대대적으로 개입했음에도 학력의 문제와 정치, 문화의 양극화에 따른 새로운 갈등의 시대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자사고 일방적 지정취소 등과 같은 학교 자치의 위협, 좌파 또는 진보적 교육이념에만 바탕을 둔 교육개혁, 모든 공교육 기관이 혁신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듯한 교육청의 혁신 학교 강요는 이미 1950년대의 보수주의자가 경고한 오래된 미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무너져가는 교육을 걱정하며 모인 선생님들에게 오래전 보수주의자의 경고는 섬뜩한 예지와 우리들이 부딪힌 문제의 역사성을 보여주면서, 이를 헤치고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향성과 원칙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모든 교육자가 보수주의자일 필요는 없고 모든 교육이 보수적 속성과 신조를 고집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집단생활과 사고에서 좌파가 제공할 수 있는 혁신과 개선이 있었다면, 그 기반이 되고 또 다른 혁신과 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우파와 보수주의의 교육

이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원만한 인성을 기르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실 세상에의 외면과 기계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의 중립, 이를 넘어서 이데올로기 중심의 진보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선불리 모든 걸 부정하고 파괴하기보다는 문명이 제공하고 바탕을 둔 원칙과 역사, 전통적 덕목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 역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 보수주의, 그중에서도 영미권의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근대문명을 정립한 원칙들과 민주정의 절대성에 대한 사고편향에 바탕을 둔 자코뱅적 평등주의, 그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인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김일성 식의 전체주의의 위협을 경계하고 자유롭고 위대한 개인의 존엄에 대한 가치다. 이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벗어나 저개발지역 약소 민족들을 휩쓸었던 사회주의의 광풍과 맞서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피를 흘려 배운 가치이기도 했다. 골드워터의 경고는 이렇게 쌓아올린 가치와 역사, 근대적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제도적 기구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모인 교육 현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좀 거리를 둔 타자의 역사에 바탕을 둔 보수주의는 좀 이질적인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보호와 발전에서 큰 의의를 지님과 동시에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태어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한국현대사의 경험으로부터 자생한 한국형 보수주의 시민들의 경우에서라면 더 더욱,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을 더해 배우고 축적하여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개화와 계몽을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근대교육의 핵심으로 잡았던 우리들의 선대와 그 러한 신교육의 실력 양성가들의 오랜 신조와 열망으로부터 비상(飛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입국을 돌아본다면, 이 역시 우리의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절되고 이질적인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전통과 보수성으로 포섭할 수 있는 우리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한성 감옥 작은 감방에서 조선의 백성들이 개인의 존엄과 가능성에 바탕을 둔 서구적 근대성에 바탕을 둔 개인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소망했던 이승만의 비전이 태어났던 것처럼 여기 모인 선생님들이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 그날을 상상해 본다.

교사 박석희 (울교련 회원)

역사교사로서 바라본 1910-1945년의 한국인 사회

한국 역사에서 191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국사 편찬위의 집필 지침에 충실히 따라 출판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한국인들이 과거 20세기 전반기에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의 정치적 필요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현대 한국사 학자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한, 인위적인 집단적 관념을 충실히 담고 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내게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여 새로울 것도 없는 일제 시대 역사 서술의 비이성 성의 근본 원인은 그 기저에 흐르는 역사관의 일관된 편향성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의 서술 시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집단주의적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는 한국사 교과서 상에서 소위 '열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이라는 명제로 합리화된다. 하지만 이 명제는 정확하게 역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사고를 '달리게' 만들고 '비현실적' 현실 인식을 강화시키게 된다. 즉, 학생들은 그 결과 배타적인 집단주의적 열정을 가슴에 품도록 요구받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화한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프로젝트들을 적극 수용하고 지지하도록 세뇌될 준비가 된다. 가령 교육의 경우 혁신학교, 민주시민 교육, 수시 전형 확대 등도 모두 학생 개인의 지적 능력 개발보다는 공동체적 교육이라는 비전을 지향한다. 이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실제 교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집단화된 '학생 공동체'의 인위적 상정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지식보다는 체험, 특히 갈등 해소나 협력적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두는 교실 수업 활동이 강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 사고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개인주의적 지성이 점차 소멸되어 나감으로써, 집단주의적 사회의 견고한 유지라고 하는 특정 정

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충실히 따른다.

올해 2020년 한국사 교과 수업에서 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진도 나가는 수업 내용은 동영상으로 촬영 편집하여 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가급적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탐구 발표와 이후 이어지는 학생들 서로 간의,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질의 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 위주의 활동을 해나갔다. 특히 2학기에 들어와 그 내용에 있어 일제 시대의 역사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이에 대해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발표, 그리고 질의 응답 및 토론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학생들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 및 토론에 있어서 나는 내 시각을 직접적으로 거의 밝히지 않는 편이다. 나로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이 한국사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고, 나의 학생 교육 원칙인 '태도는 예의 바르게, 생각은 자유롭게'에 입각해서 토론 시 표현되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로 수업을 지도하였다.

학생들은 교과서 상의 논리에 충실하게 발표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교실에서 발표한다. 한 학생이 토지조사사업이 일본인이 한국에서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었음을 발표하였다. 나는 물었다. 그런 목적을 의도하였음을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학생은 그 사업의 결과로 총독부 소유 토지가 늘어났고 이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겨 일본인 이주민에게 값싸게 팔았다고 툭툭하게 얘기했다. 보통의 학생이 그 정도로 선후의 논리적 관계를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잘 못봤기 때문에, 나는 발표준비하면서 꽤 (교과서 내용을 잘) 공부했네 하고 생각하고 발동이 걸려 좀 심화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총독부 소유토지가 늘어난 결과를 가지고 이를 토지 조사사업의 의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한국인 지주건 일본인 지주건 땅 값을 높게 부르면 돈을 받고 땅을 파는,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굳이 일본인 지주를 위해 봉사하는 사업 목적을 가졌으리라고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총독부가 대놓고 공식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의 사업 목적이 조선의 토지 약탈이라고 천명하지도 않았고 그랬을 리도 없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역시 그 사업 목적이 일본인 지주에게 조선의 토지 혈값 매각이라고 천명하지도 않았고 그랬을 리도 없다.

교과서 상의 위의 모든 (학생이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공부하고 외우는) 역사 서술들은 한국의 역사가들 (현대의 역사 학자들 포함)이 정황적으로 추론하고 심증에 입

각해 단정함으로써 성립된 서술일 뿐 실제 역사 사실이라고 주장할 역사학적, 실증적 근거는 없다. 실제 해당 내용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소개된 관련 사료들(아마도 가장 집필진 자신들의 역사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를 고르고 골랐을 텐데) 어디에도 그러한 추론을 검증할 수 있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나에게서 반론 질의를 받은 학생은 흥분하여 교과서 상에 나와 있는 서술들을 자신의 논지의 근거로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학생의 흥분된 어조는 교과서 저자들의 확고하고 단정적인 문체만큼이나 확신에 차 있었다. 학생은 일제의 의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교과서 내용, 가령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의 자본 축적을 차단하려 했고, 한국의 광산 약탈을 목적으로 광업령을 제정했고, 총독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인삼의 전매 사업도 벌였음을 내게 항변하였다.

하지만 그 학생에게 불행하게도 인용된 교과서 서술 중 엄밀히 말해 어느 것도 역사학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은 없었다. 나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회사령과 광업령의 의도를 기술한 부분이 마치 북한 교과서에서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문구와 어조가 너무나 흡사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지만, 학생을 몰아세우고 싶진 않았다. 나는 단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조용히 되물었다.

실제로 교과서는 뒤에 나오는 단원에서, 1920년대에 와서 총독부가 스스로 회사령을 폐지한 것을 놓고 '일본 기업이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기술함으로써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운다. 현대 WTO 체제 하에서 자국의 산업을 위해서도 보호무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20세기 초에 일본이 식민지 한국의 산업을 일본 본국 기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온전히 식민지를 위한 (본국 산업의 희생을 감수하는)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주장일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사 교과서의 일제 시대 내용에서 '착취와 약탈'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부분의 총독부 경제 정책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영국사에서 왜 곡물법이 제정되었다가 폐지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걸까?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특히 한국인들 중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신념으로 열심히 독립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는 1920년대에 일제가 추구했던 정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한 축은 자유주의였다. 이 간단한 사실을 한국사 교과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한다. 실제로 이 자유주의를 내걸었던 제국은 한때 국제 사회의 인정 속에 1940년에 열릴 올림픽 개최권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물론 길게 가지 못하고 전쟁과 군국주의가 본격화되는 1930년대 중후반에 가서 그 자유주의의 분위기는 막을 내리긴 하였다.

문화통치가 본질일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본질일까? 한국의 역사교육은 어느 것이 피상적인 현상이고 어느 것이 본질이 되는 원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 이는 의도적일 것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한국사 일제시대 서술의 기본 시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민족 사회주의, 즉 전체주의이자 반자유주의임을 밝히면 좋겠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족주의 한국 역사가들이 1910-1945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연합국의 이데올로기, 즉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서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학생에게 총독부 재정 수입확대를 위해 인삼 전매 사업을 실시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물었다. 솔직히 자유시장론자인 나는 인삼 전매 사업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도 각종 물산에 왕실이나 행정 관청이 필요하면 수시로 전매를 시행했었다. 사실 이보다 더 심한 (아무런 대가 없는) 수탈 행위랄 수 있는 공납제도나 부역제도 등이 조선에선 법적으로 강제되었다. 오히려 이런 제도는 조선총독부 통치하에서 비로소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사람들은 법에 지정된 재산세와 소득세 등의 명목 외에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노동력을 뜯기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현물과 노역을 징발하지 않는 원칙은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와중에 공출과 징집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이어졌다.

어떤 면에서 봐도 일제 시대에 들어와 (민본주의를 내세웠던 조선시대 내내 계속된) 개인에 대한 정부의 착취와 수탈은 비로소 현격히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정부의 탐욕은 조선총독부 통치 하에서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음은 분명 아이러니이긴 하다. 심지어 대한제국이 외국과 했던 이권 거래에서도 볼 수 있듯, 이 탐욕의 범위는 국내에 한정되지도 않았다. 가령 운산 금광 채굴권을 따낸 미국 회사는 회사 자본금의 상당액을 고종 황제에게 '진상'해야 했고 이는 대한제국 정부와 맺은 계약서 상에 명시될 정도였다. 하긴 성리학파 같은 집단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공납(여기에는 정기적 상공 외에 각종 별공과 진상이 포함된다)의 명분으로 상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에 정부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학생에게 이런 사실을, 그런 정신적 충격을 주는 발언을 갑자기 할 수는 없었다. 마치 북한 교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내가 받은 느낌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듯이, 나는 한국사 수업 토론에서 극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사실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칼 맑스의 사회주의 강령이나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등에서 읽을 수 있는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선으로 바라보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교실에서 나를 쳐다보는 서른 명의 눈 앞에서 홀로 선 나는, 거대한 이념적 패러다임의 공간 속에서 개인주의자로서 홀로 서 있는 나이기도 하다.

1910-1945년의 한국인 사회는 분명 식민지 사회로서의 아픔과 절망을 간직한 사회였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직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시대적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 양상을 굴절시켜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후자는 전자와 관계 없이 현재의 학생들, 장차 한국 사회의 성인이 될 구성원들의 사고를 집단주의적 패러다임 속에 억지로 구겨넣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모든 물음에 한꺼번에 답하기는 어떤 역사학자나 역사교사에게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공론화해나가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그러진 우리 자신의 인식을 직시하는 불쾌한 순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그것을 알고 있다고, 모두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떠들어 대는 사람들 중에 입법이나 행정뿐 아니라 사법 영역에 있는 자들과 역사학자들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조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학교의 역사교육은 너무도 당연하게 국민 정신교육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 것이다. 집단주의적 감성이 지칭하는 것이 곧 진실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사회는 역사 교사가, 역사학자가,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일까 찾아 나서는 탐험을 할 수가 없다. 이미 진실은 사회의 대중이 알고 있는 (혹은 그들이 굳게 믿는)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사상의 감옥. 한국 사회는 이미 그 감옥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이는 바로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역사교육의 공로이다.

교사 배민 (올교련 회원)

우파 역사교사로 살아가기

수업을 준비하려 교과서를 편다.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막아낸 주체적인 고구려'와 '외세를 끌어들이며 동족을 치고 광활한 만주를 버린 신라', '양란 이후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근대 자본주의의 싹을 틔운 조선'과 '이 싹을 자른 무자비한 일제'.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망국을 막지 못했던 비운의 왕 고종'과 '일제의 칼에 잘려 나간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 '우유부단하고 타협적이었던 민족주의자들'과 '줄기차게 투쟁해 해방을 쟁취한 사회주의자들'. '이유 없이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제주와 여순'. '전쟁을 이용해 독재를 강화한 이승만'과 '노동자를 탄압해 기형적 성장을 이뤄낸 박정희'. '3저 호황 덕분에 성장을 이룬 전두환', '남북 화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김정일과 김정은', '촛불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시민들'. 내가 가르쳐야 하는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들이다.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용어를 바꾸고, 프레임을 수정하며,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넣어 나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보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걱정도 된다. 민주화의 주역이라 자부하는 586과 97세대 학부모들의 항의, 역사적 진실보다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장의 질책, 내로남불식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징계를 들먹일 교육청, 교문에서 피켓을 들고 징계를 요구할 특정 단체 사람들, 그리고 이후 학생과 학부모와 동료교사로부터 붙여질 친일 보수 교사라는 딱지가 예상된다. 이는 관계에서의 고립과 많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더 완화된 내용으로 역사적 진실과 나의 의도를 구현하려 최선을 다해 보지만 학생들은 크게 깨닫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양친과 일가친척이 호남분인 가정에서 자랐다. 자연스레 그 쪽 계열 대통령과 정당을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자라왔다. 나는 상고사에 관심이 많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꾸준히 신문을 읽어 현실 정치와 현대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나는 정의의 편에 서있다고 보았던 대통령 후보에게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 '희망돼지 저금통'을 보냈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절된 역사'를 청산하자고 했을

때 뜨겁게 지지했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교사에 대한 직업적 매력은 나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로 진학하게 했다. 고등학생 때까지 친구들과 해 본 적 없는 정치 토론이 즐거웠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편했다. 관심사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학과 내 소모임에서 나는 현대사 소모임에 참여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 현대사', 강만길의 '고쳐 쓴 한국현대사'와 박현재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읽고 토론했다. '해방역사'의 깃발 아래 매년 5월이면 광주에 답사를 갔고, 여름이면 농활에 참여했고, 회문산과 지리산을 찾아 민족 통일에 목숨 바친 빨치산 영령들을 추모했고, '양심수'라는 이름의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을 찾았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의식 있는 학생'으로서 아스팔트에 나갔고, 촛불을 들었다.

내가 대학을 다녔던 시기는 운동권의 시대가 아니었다. 운동권의 동생뻘 되는 세대도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과는 유난히 유물처럼 운동권의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었다. 운동권의 '운'자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이던 때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를 장악해 사그라져 가던 한총련의 마지막 숨구멍 역할을 했다. 또 유난히 '의식 있는 학우'라는 것을 자부했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공.예체능계 타 과 학생들을 깎아내렸다. 인접한 인문 사회 전공 학과에는 그 정도가 조금 덜 했고, 멀수록 심했다. 학우들은 대중적 민주 정당을 경멸했고, 더 세고 노골적인 진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차츰 문제를 느꼈다. 당시 홍세화가 말했던 '똥레랑스'를 자주 얘기하고, 국가 폭력에 민감하며, 기득권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견지했던 선.후배와 동기들이 정작 과 주류의 분위기에 맞지 않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이가 있으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내에서 가장 '민주적'이라 자평하던 이들이 요즘 자주 쓰이는 말로 앞장서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토론에 적극적이었으나 자세히 보면 그들의 말은 같았고 다름이 없었다. 그토록 중시했던 '다양성'은 그들이 약할 때 필요한 것이었고 그들이 강할 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그 안에서 느낀 것은 특정 이념으로 몰아가는 의사 결정 과정의 폭력성, 권위적 위계 질서,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조장하고 방치하는 교수님들의 태도였다. 그래서 난 교수님들이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았다.

4학년이 되어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나는 임용고시학원에 다녔다. '교사들의 스승'이라는 타이틀로 수십년간 역사교사 임용시험 강의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서울대 역사교육과 출신의 나이 지긋하고 유머러스해 인기가 많았던 강사는 호치민을 존경했고, 카다피를 멋지다 했고, 박헌영과 김일성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다. 이승만을 후지다 했고,

박정희를 조롱했고, 대처와 레이건을 비아냥거렸다. 사회주의의 이상을 순수하게 묘사했고, 자본주의의 천박함을 얘기했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매일 얘기했다. 그러면서 '혼다' 차를 타고 다녔다. 반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수강생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생각이 바뀌었고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되었다. 내가 나의 경험을 쭉 이야기한 것은 역사교사 양성 과정의 이념적 정치적 분위기를 알리고 싶어서이다. 내가 이야기한 이념적 편향성은 전국 각 대학의 역사교육과, 사학과가 비슷했다.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가까운 국어교육과, 국문과도 비슷했다. 일반사회교육과, 사회학과, 정외과는 조금 달랐다. 자유주의적 사고를 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시를 통해 출세하려다 실패한 사람들이 교사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깔봤다. 나머지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대체로 기저에 좌파적 성향이 있었지만 명함을 내밀 만큼은 아니었다. 이공계열 학과는 실용적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아 이념에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심히 내려다봤다. 그런 경향이 역사과가 제일 강했다.

'역사학계'가 왜 좌경화되었는지는 지난 금성출판사 교과서 논란, 교학사 교과서 논란, 국정교과서 논란 중에 많은 우파 교수들이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그것이 '역사교육계'와 '교육 현장'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편향되고 폐쇄적인 이념적 정서를 공유한 역사 교사들은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1명 내지 3명이 함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가르친다. 이들 중에 탈좌파적 내지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는 거의 없다. 나는 10년 동안 동지를 찾았는데 우리 모임을 알게 되기 전에는 한 명도 못 찾았고 아직까지는 결국 우리 모임에 모인 소수가 전부다. 더 있겠지만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다. 그래서 수업 자료 개발이나 수업 방법 연구에 힘을 쏟는다. 촘촘한 네트워킹을 통해 각종 자격 연수와 직무 연수의 강사로 활동한다.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전국역사교사모임'(이하 전역모)이다. 중등 역사교사 약 8천명 중 1/4인 2천명 가량이 모인 전역모는 역사 수업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세미나를 통해 관점을 공유하며 계간지 '역사교육'을 발간한다. 여름과 겨울 '자주연수'라는 이름으로 주제를 정해 지역을 답사하는데, 이 '자주연수'는 사실 공부보다는 밤새 통음하며 정세를 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역사교육관을 공유하며 발전 가능성 있는 새로운 젊은 교사들을 발굴해 활동가로 키워내기도 한다. 전역모의 대표적 출판물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이다. 좌파적 민족.계급 사관을 교육 과정과 검정 기준과 집필 기준이라는 통제 장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구현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장 쉽고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한 전역모의 역작이라 볼 수 있는 책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라는 대표성이 느껴지는 이름으로 나오다보니 학생과 학부모 등 독자들에게는 공신력이 생긴다. 각 학교나 도서관 등 교육기관에서 청소년용 추천 도서로 빠지지 않는 책이다.

공교육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입시 학원에서 좀 더 노골적인 의식화 교육을 하거나 각종 '마을', '협동', '사회적' 등의 수식어를 붙인 지자체의 특강이나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며 그들의 이상을 실현해간다. 입담이 좋고 대중성이 있는 이들은 TV 방송에서 예능형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대중을 상대로 공중전을 펼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진영은 어떠한가? 일단 사람이 없다. 극히 소수이다 보니 각자 외롭다. 때로는 내가 이상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외롭다. 내 머릿속의 자유주의적 역사관과 교과서와 학생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며 싸움의 최전선에서 아슬아슬한 투쟁을 해나가는데, 잘못될 경우 뒷배가 없다는데서 두려움을 느낀다. 역사교사가 아닌 교사들은 조금 있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많다. 일반인들은 수업 현장에서 법의 테두리를 지키며 올바른 역사 수업을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아슬아슬한 일인지 잘 모르고, 좌파적 사관 교육은 전교조 교사들로부터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전교조만 욱박질러댄다. 이는 전교조 또는 전역모 교사들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교사 99%가 그렇다고 보면 된다. 역사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성향 문제이고, 역사교사들의 성향 문제이고, 더 크게는 세대의 문제이다.

스승을 찾기도 힘들다. 석.박사 과정을 하려면 뜻이 맞는 교수님을 찾아야하지만 쉽지가 않다. 우파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은 거의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소속이 아니다. 근현대사는 역사학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어쨌든 역사학계는 그것을 이유로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사 받은 학위는 역사학계에서 인정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 같은 교사는 무미한 탈이념적 주제가 아닌 이상 스승을 만날 수가 없다.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실패한 것은 접근 방식이 매우 '꼰대'스러웠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에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주로 사회과학계열 전공 교수들과 관료들이었는데, 이들은 교과서 서술의 오류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역사교육계'와 '역사교사'와 '교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교과서가 엉망이니 교과서를 잡자. 그러면 입시 준비를 시켜야 하는 교사는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했던 것

이다. 하지만 교실에서 교사의 재량은 생각보다 크다.(법적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다르겠지만) 만약 실제 국정 역사교과서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역사교사들은 아마 일제와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지사의 마음으로, 80년대 지하서클에서 광주 비디오를 보여주던 비장함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진실'을 가르치려 몸부림쳤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검정 제도가 정착한지 약 20년이다.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고 하나로 통일 하라는 끈대스러운 억박지름 대신 올바른 관점에서 만든 교과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검정 기준을 강화하고, 밖에서는 교원 양성 과정과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진지전을 펼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어야 했다.

교장들의 인식과 태도도 중요하다. 올바른 관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독려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

역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 역사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좌파 성향을 타고 나는 것은 아닐텐데 역사교육과나 사학과에 진학하면 왜 모두 좌편향된 역사 인식에 동화되고, 교사가 되어 수업을 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 의문의 답을 찾는데서부터 꼬인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교사 이강산(가명, 올교련 회원)

올교련이 뽑은 2020년 최고와 최악의 교육소식

2020년이 저물어 간다. 이맘때면 누구나 새삼스런 탄식을 한다. 다사다난, 사건사고도 많았고 그 덕에 애먹는 일도 많았다는 회고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깃든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예사롭지 않은 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해는 없었다. 연초부터 중국 우한에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연말연시 한국사회를 끝내 올스톱시켰다.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이 밑둥부터 흔들린 놀라운 장면이다. 2020년은 아마도 두고두고 회자될 한해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굳게 버티어 한해간 제 자리를 지킨 솔한 사람들을 기억한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한 전쟁 같았던 2020년. 교육 현장도 할 말 많고 가슴 먹먹한 사연으로 가득했다. 한국의 실천적 교사 단체인 올교련이 올해 최고와 최악의 교육뉴스들을 모아봤다. 어떤 일들이 한국의 교육인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2020년 최악의 교육 뉴스

#코로나19

어떤 이견도 없었다. 우리는 2020년 최악의 교육 뉴스로 이 문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의 수백만 학생들, 그리고 교육 가족들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들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연초부터 전국 학교는 문을 걸어 잠궜고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최대 한 달 넘도록 미뤄졌다.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교육당국은 원격수업과 등교를 교차해 진행하는 형태로 학사 운영했다. 원격,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방역관리를 함께 해야 했던 현장에서 비대면의 형태로는 학생들 학력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나형의 상하위권 격차는 2016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잦은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인 성적 하락 현상이 나타났지만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학업부진이 두드러졌다. 또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인해 긴 시간을 집안에 있어야 하는 학생들은 생활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식습관, 취침과 수면 시간 조절 등 건강관리는 물론이거니와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생들이 집안에 고립되는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마음 건강의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원격수업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빌라에 살던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안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 피해를 입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대표적이었다. 등교가 불규칙적이고 지역아동센터조차 문을 닫는 곳이 많아 아동 관리에 여전히 근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헌고등학교 사태

2019년 연말에 터진 소위 인헌고등학교 정치편향교육 폭로 사건은 해를 넘겨 2020년에도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관련 논란은 지난해 10월 서울 인헌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한일 관계와 여성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대해 재직 교사들이 극도로 편향적인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수업의 형태로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인헌고 최인호군 등은 정치편향적 수업 실태를 폭로했다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한편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인헌고 교장과 교사 등을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맡겼고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끌다 최근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태는 현재까지 송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신뢰와 존경, 사랑의 관계여야 할 교사와 학생 관계는 처참할 정도로 깨어졌고 노골적인 따돌림, 보복성 처벌이 반복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련의 이념단체들이 오랜 세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고 한국사회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정면에서 반기를 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친 사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반일민족주의, 급진 사회주의운동 등에 은연히 노출 시켜 온 일부 교사, 교원노조 등의 악습들이 수면 위에 드러난 이 사태는 당사자 학생들이 졸업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최인호군 등 이슈의 중심에 섰던 학생들은 올해 2월 졸업장을 받았다.

#“교장, 너를 잊지 않겠다” 이어지는 혁신학교 논란

좌파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혁신학교. 이제 학부모들은 ‘혁신’이라는 이름 껍데기 아래 꼬깃꼬깃 숨겨온 진실을 다 알아챈 듯한 느낌이다.

혁신학교 지정 문제로 극단적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는 혁신학교 지정 철회 절차에 돌입했다.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와 교육부실을 우려해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해왔다. 이 학교 주변에는 ‘○○○(경원중 교장)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 ‘혁신학교 필요 없다’ 등 현수막들이 붙었다. 이 학교 학부모 뿐 아니라 근처 반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격렬하게 혁신학교 반대를 외쳤다. 지난 7일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10여 명은 학부모들이 학교 앞을 점거하면서 퇴근하지도 못하고 교내에 머물렀다.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은 교육감 답변 요건(1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혁신학교는 좌파 교육감들이 2009년부터 본격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교육과정 운영이 상당히 자유롭지만 한편으로 학력 수준이 심각히 저하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원중 측은 학부모들 걱정이 기우라며 호소문까지 냈지만 학부모들은 “혁신의 ‘혁’ 자도 붙는 게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지난 11일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원중이 학교운영위 심의에 따라 마을 결합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요청하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관련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시사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면서도 ‘개인·집단 이기주의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뒤끝을 남겼다. 개인, 집단 이기주의를 힐난한 서울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두 자녀를 모두 외국어고등학교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최고의 교육 뉴스

#코로나 속의 기적 같은 수능 풍경

과연 제대로 치르는 게 가능할까, 슬한 의구심과 걱정을 불렀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 49만 3433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시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 진행되었다. 상당수의 감염환자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것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격리 수험생 최대 3775명, 확진 수험생 20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험실을 마련했다. 자가 격리 수험생을 위해서 별도 시험장 113곳에 시험실 583개, 확진 수험생을 위해서 전국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을 마련하였다. 확진자 수험생을 보조하는 감독관들은 우주복같은 두꺼운 밀폐형 방역복장을 한 채 시험감독에 참여하였다.

이날 전국 수험생들은 모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에 돌입했다. 아침에 KF80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시험장에는 여분의 마스크를 비치하기도 하였다. 시험 당일 확정된 수험생도 시험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 교육당국은 꼼꼼한 배려를 하였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교육의 최대 이벤트이나 한 해 농사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시험은 무탈하게 잘 진행되었다.

이날 수능을 치르는 확진자는 35명, 자가 격리자는 404명으로 집계되었다.

#기적같은 온택트, 교실은 진화 중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차단된 심각한 언택트의 시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한국교육은 가장 큰 위기를 맞닥뜨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온라인 기반 활동에 최적화된 한국사회는 교육의 위기마저 극복해내었다. 언택트(untact) 시대를 넘어 온택트(ontact) 교육의 실험적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교사들은 원격수업 체제에 발맞춰 단순한 수업 전달자가 아닌 콘텐츠 제작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초기만 해도 현장 교사들은 '7분짜리 영상 만들어 올리는데 4시간이 걸렸다'며 탄식해 하는 분위기가 다수였다. 그러나 점차로 웹기반의 콘텐츠 생산 노하우가 쌓이고 학생들도 적응하면서 현장의 교육을 온라인에 이식하는데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온라인 학습 및 학생 관리 플랫폼인 '위두랑'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학습관리를 하며 '줌' 같은 등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이 전국 수업 현장에서 보편화되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온택트형 교육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

한편으로 단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해결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서 교육현장은 구조적으로 과밀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학급 수는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과대학교, 과밀학교를 해소할 기회로 삼는 것. 교육부는 연 2조~3조원 규모의 신설교부금을 배정해 학교 건물 신·증축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등에 나설 계획이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유희교실이 있는 학교로 학생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으로 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국회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이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물론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노고와 에듀테크를 향한 정책적 지원 속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었던 한국의 교육 실험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뉴스 정리: 교사 배재희(올교련 회원)

제 4부



을교련 자료마당

읽을 자료 1.

카드 뉴스로 만나는 올교련

교사 흥미금(올교련 회원)

올교련의 생각, 카드 뉴스로 만나 보시죠!





전문성 있는 교육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

전문성

정치편향 NO!

학생은 교사의 정치 노리개가 아닙니다.
제 2의 인헌고 사태 NO!

학생인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보호!

해마다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교련은 교권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올교련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이란?

개인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
미래의 역량을 갖추는 경쟁력 있는 교육

**올바른 교육은
'올교련'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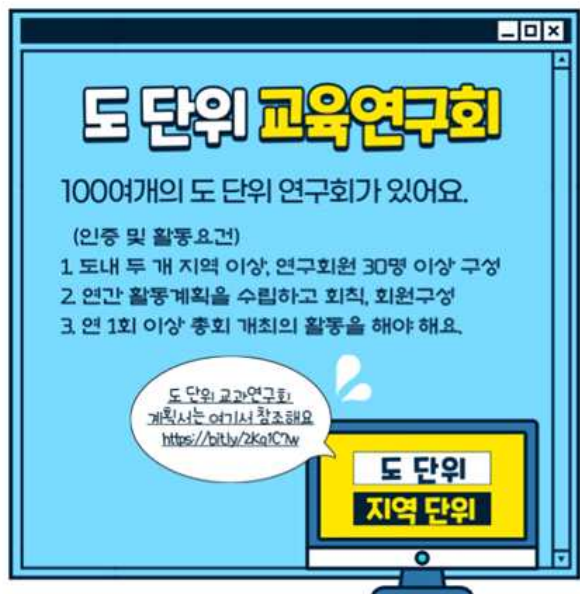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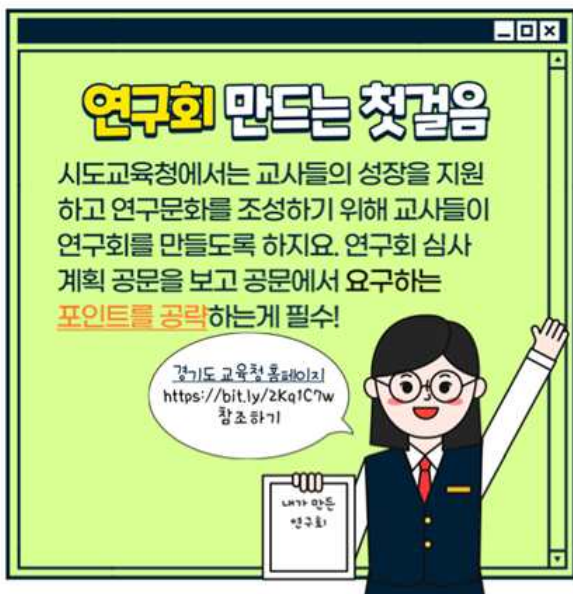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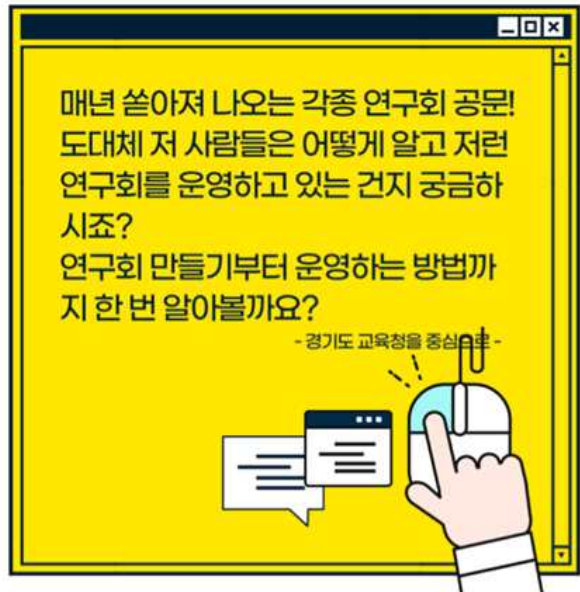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어지며,
정회원은 현직교사(기간제 교사 포함)만 가능

**상식이 통하는
교단문화를
함께 만듭시다!**

NAVER 카페 '올교련' /
nature20200203@gmail.com /
홈페이지- <http://thenature.or.kr/>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연구회 ABC

교사 정근형 (올교련 회원)



도 단위 교육연구회

연구회 선정은 **계획서**가 중요해요!
교육청에서 관심있는 **키워드**를 공략해요!
(예시) 경기도교육청 키워드: 혁신교육, 다문화, 메이커, 회복적 생활, 평화통일, 공간활용, 연극, 스마트교육, 뉴 스포츠, 놀이체육, 온라인 교육 등
이렇게 많은 주제가 있어요: <https://bit.ly/3pesGoS>

5-CT(소통·비행·협업·창의·컴퓨팅 사고) MAKER

Communication Thinking (소통)	Computational Thinking (메이커)	Critical Thinking (비판)
*의사 소통 능력 향상 *협업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창의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Collaboration Thinking (협업)	Creativity Thinking (창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함께 연구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연구회

출처: 경기도 메이커 교육 연구회

지역 단위 교육연구회

영역은 크게 교과, 범교과, 혁신교육(도교육청 사업이다 보니.. π.π)으로 나눠져요.
도 단위 연구회보다 **제한사항이 적어 손쉽게 응모**할 수 있어요.
(인원제한 15명 내외이나 사실상 없음)

교육연구회는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돼요. 지원 금액은 각 시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역 단위 교육연구회

지역 단위 교육연구회는 **계획서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 부담이 없어요.

새로운 특이한 담구를 위한 교육 연구회 운영

1. 연구 목적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5. 연구 기대 효과

1. 연구 목적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5. 연구 기대 효과

지자체 활용하기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교육 예산을 받아 교과 교육연구회와는 별도로 **교사 학습동아리**도 있지요.
내가 원하는 주제로 **강사도 직접 섭외**해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연구회, 교사 동아리 등의 공문들을 잘 살펴보세요.



연구회 가입 GO GO!

교육 연구회를 직접 만들기 힘들다면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교육 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해도 좋아요.
연구회에 가입해서 꾸준히 연구하다 보면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요.



올교련은 올벼를 교육을 고민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실력도 쑥쑥 경력도 차곡차곡”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두렵지요. 그래서 연구회를 처음 만들면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동료들과 함께 꾸준히 활동하면 교사로서의 실력도 쑥쑥 올라가고 경력도 차곡차곡 쌓이게 된답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는 올교련과 함께 하세요!

출처: 올교련 2020년 1학기 교육연구회 운영 계획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안

일 시	2018. 5. 30(목) 5교시	수업자	○○○
대 상	3학년 1반 학생 25명	장 소	3-1 교실
단 원	도덕 1. 나와 너, 우리 함께	차 시	2/4
성취기준	친구 간의 우정과 믿음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할 다툼과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배움주제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방법		
배움목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다짐을 할 수 있다.		
수업자 의도	왜 배울 것인가?	우리 학급은 다문화 학생 및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남자아이들 중에는 언어표현이 미숙한 친구들도 몇 명 있다. 또한 여자 아이들 중에는 외모, 집안 환경 등에 따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나뉘기도 한다. 또한 우리 반 학생들은 타인의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 내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가 좀 더 심해지면 왕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특히 끼리끼리 노는 경향과 몇몇 학생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경향은 학생들이 서로 원하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둠을 구성하라고 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이들은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하였고 선택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학생이 두 명이 생겨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에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중에 '무지개 물고기' 이야기를 듣고 게임활동을 하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무의식중에 깨달으며 친구들을 배려하도록 '독서치유모형'의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수업 설계	독서치유모형은 학생들의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마음을 성찰하면서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학생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수정하도록 하는 수업모형이다. 학생들은 '무지개 물고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물고기와 따돌림을 하는 물고기들의 상황을 자연스레 자신의 상황과 연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외톨이 게임'과 '벽뚫기 게임'을 하면서 '술래(왕따)'와 '술래가 아닌 학생(따돌림을 하는 학생)'의 마음을 알아보고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알아보며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기에서 활동을 한 소감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학습지에 정리하면서 배움을 마무리한다.		
배움과 성장을 위한 수업 흐름			
배움 준비 (5')	전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열기 -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게임을 통해 마음을 열고 4모둠으로 나누기. 			

배움 활동 (30')

전체활동, 모둠활동, 전체활동

- 활동1. '무지개 물고기' 책 읽어주기
 - 표지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무지개 물고기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책을 읽을 때는 실감나게 읽어준다.
 - 발문하기
 - 1) 친구들이 처음에 무지개 물고개를 왜 싫어하였나요?
 - 2) 무지개 물고기가 변하기 시작한 건 누구 때문이었나요?
 - 3) 무지개 물고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늘을 친구들에게 떼어주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4) 여러분도 무지개 물고기처럼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 활동2. 외톨이 게임

모둠을 하나 정하여 교사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한 후 활동을 한다.

 - 술래 정하기: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한다.
 - 술래가 아닌 모둠원들은 둥그렇게 둘러서서 밖을 향해 돌아선다.
 - 술래는 원 안에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팔을 잡는 등 모둠원이 자신과 눈을 맞추고 웃기도록 노력한다. (TIP 참조)
 - 술래가 아닌 모둠원들은 술래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술래와 눈을 맞추거나 말대꾸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모둠원 중 술래와 눈을 맞추거나 말대꾸를 하는 등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 활동3. 벽뚫기 게임
 -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하고 술래가 아닌 모둠원들은 둥그렇게 둘러서서 어깨동무를 하여 술래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형의 벽을 만든다.
 - 술래는 밖에서 틈을 엿보면서 집단원 사이를 벌리고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애쓴다.
 - 술래가 안으로 들어가면 술래가 다른 사람을 술래로 지적하고 또다시 게임을 진행한다. (TIP 참조)



TIP

- 동화를 읽을 때 책 표지와 사이 사이에 있는 그림들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진다.
- 게임을 할 때 술래는 간지럽히거나 욕을 하지 않도록 하며 집단원들은 술래를 밀쳐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배움 정리 (5')

전체활동

- 오늘 활동을 한 후 느낌을 간단하게 발표해 보고 학습지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한다.
 - 술래가 되었을 때 느낌은 어떠했나요?
 - 술래를 뿌리칠 때, 막았을 때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 혼자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활동지에 적어봅시다.

✓ 수업 과정 중 성찰할 내용

- * 책 읽어주기와 게임활동이 학생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 수업 후 성찰할 내용

- *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이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 모둠을 바꿈으로써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 보기

타당성을 생각하는 국어과 토론학습 과정안

1. 수업의 개요

학급	5-2	지도교사	○○○	장소	5-2 교실
단원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쪽수	226-228	차시	8/10
학습주제	◆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 알기				
학습목표	• 인터넷 용어 사용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학습자료	• 교사: PPT, 동영상 • 학생: 판정표, 토론자 기록표				
수업모형		창의적 사고 기법		인성덕목	
찬반토론 수업모형		확산적 사고		존중, 칭찬	

2. 교수·학습 과정안

단 계	주 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토론의 사회자)	학 생		
토론 준비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파악 학습 활동 안내	■ 동기유발 ◦온라인 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온라인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단어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어떤 용어들이 있었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나요? ◦온라인 대화의 사용으로 생겨난 새로운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언어의 현상을 그냥 무시코 지나치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 뒤에 사용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찬반토론을 하려고 해요. ■ 학습 문제 제시	◦온라인 대화에는 학급누리집에 글 남기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당근, 섬, 지름신, 열공모드, 므훗이요. ◦잘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요, 재미 있어요. 등	6'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문제 제시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인터넷 용어 사용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 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활동 순서 안내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주장 펼치기) 찬성-반대 순 (반론하기) 반대-찬성 순(질의 답변) (주장 다지기) 반대-찬성 (판정하기) 판정단 </div>			
토론 전개	논제제시 및 각 측의 조장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대화에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찬반대립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찬성측과 반대측, 판정단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측과 반대측의 조장들은 논제에 대하여 자기측이 주장하는 논제에 대하여 자기측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정정당당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한다. ◦판정단의 단장은 ‘감정적인 태도나 의견은 지양하고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인사를 한다.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정단의 단장은 판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측부터 입론을 시작하도록 해 볼까요? ◦다음은 반대측에서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측 입론 ◦반대측 입론 	7’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활동지 PPT, 판정표, 주장근거표
	1차 작전 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제 2분동안 작전타임을 갖고 상대방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른 생각을 발표하는 ‘반론’을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모여서 작전회의를 한다.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정단도 판정에 대한 회의를 한다.
	반론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이제 작전타임을 마치고 상대측이 입론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나 옳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꽃은 ‘반론’이라고 하는 만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측 학생들이 찬성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부족한 점이나 그릇된 점들에 대하여 반론을 진행한다. * 찬성측 학생들도 반대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부족한 점이나 그릇된 점들에 대하여 반론을 진행한다. * 학습지를 보면서 상대측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비판적으로 반론한다. * 조장은 시간조정에도 신경쓴다.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활동지 PPT, 주장 근거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자는 칠판앞에 각 팀의 주장근거표를 게시하고 표를 보며 학생들이 한 가지씩 반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차 작전 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제에 대하여 매우 활발하게 반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2분동안 작전타임을 갖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종 주장을 정리하여 ‘주장다지기’를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모여서 작전회의를 한다.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장근거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론하기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

	주장 다지기	◦자 이제부터 찬성측부터 논제에 대한 여러분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측, 반대측의 순으로 입론과 반론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그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확실하게 발표한다.	7'	장근거표를 작성한다. ☒ 주장근거표 ☒ 주장근거표를 제시하며 발표를 한다.
토론 정리	판정결과 발표	◦오늘 토론에 대한 판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판정인에서 입론, 반론, 최종반론 과정에서 태도 등과 함께 점수를 발표한다.	1'	
	선생님 말씀	◦토론을 한 소감(칭찬과 개선점)			
수업 마무리	지식 정리 하기	▣ 정리하기 ◦토론에서 나온 인터넷 용어의 특징 발표하기 ◦이 밖에도 지켜야 할 인터넷 예절 알아보기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6'	☒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음 수업시간에 배울 '누리사랑방'이라는 단어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다음 차시 예고 하기	▣ 차시예고하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누리사랑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배울 주제에 대해 알기		

3. 판서계획

● 단원: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 학습문제

인터넷 용어 사용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 학습활동

(활동1) 찬반토론하기

(활동2) 판정/자기평가/
선생님 말씀

```

graph TD
    subgraph 1단계 [1단계 주장 펼치기]
        A[찬성팀 주장 펼치기 (2)] --> B[반대팀 주장 펼치기 (2)]
    end
    A --> C[1차 직면대담 (2)]
    B --> C
    subgraph 2단계 [2단계 직면대담 (5)]
        C --> D[찬성팀에게 질문 (5)]
        C --> E[반대팀에게 질문 (5)]
    end
    D --> F[2차 직면대담 (2)]
    E --> F
    subgraph 3단계 [3단계 주장 다지기]
        F --> G[찬성팀 주장 다지기 (2)]
        F --> H[반대팀 주장 다지기 (2)]
    end
    G --> I[3차 직면대담 (2)]
    H --> I
    
```

<토론할 때 지켜야 할 점>

- 상대측의 의견과 내 의견을 비교하며 듣습니다.
-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발표를 합니다.
- 화가 난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아무리 좋지 않은 의견일지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속담이나 격언, 명언 및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합니다.
- 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발표합니다.
- 메모를 하면서 듣습니다.

4. 형성 평가 계획

가. 관찰평가

평가내용	평가결과		
	잘함	보통	부족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고 있는가?			
올바르게 온라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온라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 자기평가

스스로 평가 해봐요(토론자-찬성, 반대측)	자기 평가		
	잘함	보통	부족
나의 편과 협동을 잘 했는가?			
토론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잘 발표하였는가?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고 있는가?			
올바르게 온라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온라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평가 해봐요 (판정단)	자기 평가		
	잘함	보통	부족
나의 역할(판정인)에 충실하였는가?			
토론자들의 의견을 잘 들었는가?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고 있는가?			
올바르게 온라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온라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토론자 기록표	토론 절차와 규칙을 지키며 토론하기	토론 주제	
토론일	년 월 일	학년 반 이름 ()	
토론 절차	우리 편	상대 편	
주장 펼치기	우리편 근거 :	상대편 근거 :	
반론하기 <질문하기 답변하기>	상대편의 문제점 :		
주장 다지기			

스스로 평가 해봐요	자기 평가		
	잘함	보통	부족
1. 토론 주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는가?			
2. 다른 편의 의견을 잘 들었는가?			
3. 나의 편과 협동을 잘 했는가?			
4. 토론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잘 발표하였는가?			
토론 후 소감			

판 정 인	판 정 표	학 년 반 번
		이름 ()

※ 토론을 보면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비교하고 판정해 보세요.(○로 표시)

주 제		내용	반정(○표)	
			찬성	반대
주장 펼치기 (입 론)	1.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의 보편타당성	승	승	
	2.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이유, 정보의 활용능력	승	승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논리구성)과 설득력	승	승	
반론하기	4. 상대측 용어 정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와 근거	승	승	
	5.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자료의 출처나 진위의 점검	승	승	
	6. 상대측의 주장과 이유, 근거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	승	승	
	7. 효과적인 질문	승	승	
	8.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적절한 답변	승	승	
	9. 주장과 질문, 답변의 일관성	승	승	
최종변론 (주장 다지기)	10. 자기측 주장의 타당성 부각과 근거, 이유의 재구성 능력	승	승	
	11. 상대측 주장의 부당성과 논리적 부조리 부각능력	승	승	
팀 운영과 예절	12. 팀 협동이 잘 되는가?(협의시간)	승	승	
	13.말하고 듣는 자세가 바른가?	승	승	
합 계	○ 받은 수의 합계는 얼마인가?			
판 정	()			

※ 토론을 마치고 자기평가를 해 보세요.

스스로 평가 해봐요	나의 평가		
	잘함	보통	부족
1. 나의 역할(판정인)에 충실하였는가?			
2. 토론자들의 의견을 잘 들었는가?			
3. 토론주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는가?			
토론 후 느낌			

<주장 근거표-주장펼치기>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토론 주제: 온라인 대화에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	
주장	
근거	1. 2. 3. 4. 5.

<주장 근거표-주장다지기>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토론 주제: 온라인 대화에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	
주장	
근거	1. 2. 3. 4.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덕과 학습 과정안

학교명	○○중학교	수업 학년	3학년 9반
수업 교과	도덕	수업 인원	남학생 22명
수업 교사	○○○	수업 일시	2019. 7. 12. (금) 7교시
지도 단원	Ⅱ 청소년과 도덕 2.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성취 기준	도926.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처했을 때의 문제점과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수업 주제	대중문화와 문학 작품 속의 학교 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기		
학습 목표	1. 문학 작품, 영화 속의 학교 폭력을 보고, 현실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2.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학교 폭력 근절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전체 단원 구성	1차시 : 폭력의 종류와 그 결과 2차시 : 영화와 문학 작품 속 학교 폭력 알아보기 3차시 : 학교 폭력 예방 표어 제작하기 4차시 : 그동안 배운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함께 생각 나누기 (수업 나눔의 날 수업 차시)		
해당 차시 수업 흐름	구분	수업 내용 (4/4차시)	
	도입	■ 수업 목표 확인 및 전시 학습 확인	
	전개	■ 활동1 :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소설 ‘아우를 위하여’에 나오는 문제 상황, 느낀 점, 앞으로의 자세를 발표하고 교사가 피드백 한다. ■ 활동2 : 칠판에 주어진 2개의 보드에 각각 ‘피해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과 ‘가해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 잇에 적어 붙인다.	
	정리	■ 형성 평가 ■ 차시예고	
수업자 생각 (수업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작품이나 소설 작품 속에는 작가의 주제 의식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철학 사조나 인간의 윤리적 고찰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문학 작품, 문학 작품을 토대로 만든 영화를 토대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 소설을 토대로 1997년도에 제작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석영의 소설 ‘아우를 위하여’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속에 나타난 교실 내의 급우 간 억압과 폭력 상황을 학습하게 하였습니다. ◦ 그를 통해 실제로 재연할 수는 없는 학교 폭력을 실감나는 작품을 통해 접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상황과 느낀 점, 앞으로의 바람직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표어를 제작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 속에 학교 폭력 근절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 학교 폭력은 이제는 오래된 학교 사회의 큰 병폐입니다. 단순히 강의식 수업이나 단순 조별 활동을 하기 보다는 범교과 수업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 작품 해석력을 기를과 동시에 그것을 도덕 과목에 접목하여 실생활에서도 비폭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제 조

1. 문제 상황

2. 느낀 점

3. 앞으로 우리들의 자세

<아우를 위하여>

제 조

2. 문제 상황

2. 느낀 점

3. 앞으로 우리들의 자세

<피해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

<가해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

실존주의를 적용한 도덕과 학습 과정안

도덕과 본시 수업안							
대단원	통합		중단원	통합		소단원	통합
대상	고등2	일시	2019.		장소	00고교	교사 000
수업 목표	사고기능 목표	- 실존주의를 다양한 분야의 매체에 적용할 수 있다.					
	내용목표	- 실존주의의 각 사상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단계 (시간)	교수-학습 과정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형태 및 자료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6분) (1분)	상호인사 및 주의집중 전시학습 확인 수업목표 확인	▶ 상호인사 - 상호 인사하며 수업분위기를 조성한다. ▶ 전시학습 확인 - 듀이의 실용주의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 ▶ 본시 수업 목표 안내 - 실존주의를 다양한 분야의 매체에 적용할 수 있다. - 실존주의의 각 사상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 상호인사 및 수업준비 ▷ 전시학습 확인 ▷ 수업목표 확인		☞ 수업 분위기 조성 ☞ 문답을 통하여 학생의 지식을 확인한다.
전개 (35분)	조별 과제 발표	▶ 1조 국내 소설 작품 소설 속에 나타난 실존주의 소설 : 요한 시집 2조 해외 소설 작품 속에 나타난 실존주의 소설 : 최초의 인간	▷		

단계 (시간)	교수-학습 과정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형태 및 자료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3조 영화에 나타난 실존주의 영화 : 쇼생크 탈출 4조 시 속에 나타난 실존주의 시 : 그 때는 그 때의 아 다음을 모른다 5조 나의 존재와 나의 미래 윤리교사 : 사범대 윤리교육 과 및 윤리 교사 직업 소개			
정리 (9분) (7분)	개인 발표	<나의 실존 확인하기> 앞에 제시된 보드(미래에의 나에게 / 현재의 나에게)에 자신의 다짐, 포부, 목표 등 하고 싶은 말을 붙인다.			
(1분)	차시예고	그 중 인상적인 것을 교사가 발표한다. ▶차시예고	▷다음시간 배울 내용을 숙 지한다.		
(1분)	상호인사	▶상호인사(수업종료)	▷상호인사		

Extensive Reading Lesson Model Plan

Extensive Reading Activities : Monitoring Reading

- 4.1 Reading Record Form
- 4.2 Reading Notebook
- 4.3 Individual Interviews
- 4.4 One-Sentence Check
- 4.5 Written Book Check
- 4.6 Talking about Books

Activity	Aim	Procedure	Application to our class
Reading Record Form	To help Ss keep track of their reading and progress toward reading targets	Prepare a Reading Record form (Book title, Publisher, Reading level, Start/Finish date, Reading time, Rating, Pages)	-Reading time : how much time they have invested in reading. -Level : Too easy/ Good level/ Too difficult -Rating : Good/ Fair/ Poor
Reading Notebook	To keep a record, To monitor Ss' progress, To share reactions to books(T & Ss)	T seldom correct language mistakes, medium for dialogue	-T reads and reacts to an entry in a S' notebook : takes a great deal of time (Ss like pocket-sized notebooks)
Individual Interviews	To meet students individually to talk about their reading	-T meets Ss after a few weeks after the beginning of the term or course. -T asks Ss general	-Remind Ss to bring their Reading Notebook or other records. -Allow low level class to

		questions about their reading.	use first language.
One-Sentence Check	To monitor Ss' reading	Ss should be familiar with one-sentence summaries(Ch 9.6) before doing this activity.	Tell Ss they have a short time(2~3 min.) to write one sentence summaries of their books
Written Book Check	To determine whether Ss have read their books (Tell Ss to give their books when they have finished reading them.)	-Photocopy selected pages from the Ss' books. -Give Ss the photocopied pages (not the book itself) with two questions	-The photocopied pages should be from the second half of the book, should include the illustration - What happened before this part? What happened after this part?
Talking about Books	To gauge Ss' comprehension To validate the reading program	-Before the interview day, distribute the handout and talk the Ss the date, length of interview, ground rules, & example Qs. -On the interview day, have Ss individually tell you about a book.	-What is the book about? -How did you feel when you finished? -Who was your favorite character? -What was the most interesting thing about it? -What did you think of the book? etc.

Extensive Reading Activities : Writing Reading Reports

- 9.1 Quick Book Report Form
- 9.2 Book Report Checklist
- 9.3 E-Critic's Corner
- 9.4 The Best of Books, the Worst of Books
- 9.5 Getting personal
- 9.6 One-Sentence Summaries
- 9.7 Picture It
- 9.8 Online Book Discussion Forum
- 9.9 Interactive Reading Community

Activity	Aim	Procedure	Application to our class
Quick Book Report Form	To reflect, review, use language of the book in their own 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ite name, date, title, reading level, author, publisher - Summarize the book in 1~2 sentences and write some comments 	In the case of more reticent students, teachers often find rich inner lives, brimming with ideas and insights in the writing class.
Book Report Checklist	To write summaries of books they read (a checklist of questions)	Give each student a Book Report Check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one paragraph about the author -explain the title -what the books is ab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mmary of the plot -two man characters -Qs to ask one main character -Why the author writes this book
E-Critic's Corner	To provide real communicative situation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roduce Ss to the Critic's Corner Web page -Have Ss fill out a Review 	-Once a week, set aside 10~15 min.in class to get together and

	help Ss write succinct reviews	Form online for homework	discuss. -Non Internet variation: write their reviews on large index cards and store cards in a cabinet.
The Best of Books, the Worst of Books	To help Ss develop their abilities by writing a personalized book review	beginning students come up with words like 'story/people/place/like' while advanced students mention words like 'character/plot and etc'	Ss wrote some terrific, short (100~150 words) personalized reviews in preparation for the school culture festival (in Japan) and they seem to enjoy writing about the worst books.
Getting personal	To help Ss connect what they	Offer Ss smorgasbord (serve buffet-style dishes of various foods; Swedish style) of ways	-Strengths and weaknesses -Interior monologue -Lessons for living -Letter or Diary writing -Manga Mania -Neighbors -Film Director -Story Journey -Agony Column
One-Sentence Summaries	To help Ss identify main ideas by summarizing what they read in one sentence	-Brainstorm the most important points -Reduce those to just the key parts -Revise the sentence and read it aloud	-Low level: write one main idea -High level: include in their one sentence the name of the author and the title of the book. -one sentence between 20 and 25 words long

<참고문헌>

Extensive Reading Activities for Teaching Language (2004 Edited by Julian Bamford and Richard R Day)

Extensive Reading Lesson Model Plan (Master Plan)

Students		Date /Period		Instructor	
Title	Extensive Reading	Class	Group Activity	Location	English Zone
General Objective	<p>1. To enhance understanding of extensive reading and its effective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ents read as much as possible - Students select what they want to read - Reading is individual and silent - Reading speed is usually faster - The teacher is a role model for the students <p>2. To introduce various reading materials, resources, and activities for extensive reading</p> <p>3. To increase trainees' autonomy of pleasure reading</p>				
Materials & Equipment	T	PPT books	Slides, English Ss	English books, White board, and etc.	
Step	Time	Procedure	Teaching & Learning Activities		Aids
			Teacher	Students	
Introduction	10'	<p>Reviewing previous class</p> <p>Drawing attention</p> <p>Learning Object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ing each other, course, & assignments • Getting started of extensive reading • Exploring Extensive Reading Materials focusing on introducing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ents answer the questions. • Students have their own white boards to write their dreams • Student can recall 'Extensive 	PPT Slides

				Re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udents can get to know what today's topic is. 	
Development	30'	<p>Activity 1</p> <p>Activity 2</p> <p>Activity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tting started of designing of an extensive reading for the students Practicing timed reading Exploring Extensive Reading focusing on motivation & supporting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udents practice Students find some words and summarize what they read Students come to the front and read what they summarize. 	<p>White boards</p> <p>Books</p>
Closing	10'	Wrap Up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loring Extensive Reading focusing on monitoring & evaluating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udents talk about the activities with partner or group members and revise them with peer feedback. In a group, activities can be varied. 	<p>Books</p> <p>Handouts</p>

Sub Plan

Book	The Giver	Author	Lois Lowry	Time Allotment	9~10th
Aim	Summary and Opinion	Material	Worksheets	Grade	10th
Specific Objective	1. To enhance understanding of extensive reading and its effectiveness 2. To give comprehension check-up questions and tricky questions about what students read 3. To increase trainee's autonomy of pleasure reading 4. To do the personal writing				
Materials & Equipment	T	The Giver	Ss	The Giver and worksheets	
Step	Time	Procedure	Teaching & Learning Activities		Aids
Introducti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iewing previous class - Drawing attention - Learning Objective 	1. Adult Assignment가 12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2. Adult Assignment를 상위집단에서 부여한다는 것이 적절할지 이야기 나누기. 3. Jonas가 the receiver로써 the giver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이야기 나누기.		White boards Books
Development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ity 1 - Activity 2 - Activity 3 - Activity 4 	1. Comprehension checkup Questions : Chapter 9~10을 보면서 확인 문제 풀기 2. Summary and guessing 모듈별로 chapter 9~10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기. 3. Personal writing 자신이 Jonas라고 가정하고 the receiver 로써 the giver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에 대해 적어 보기. 4. Demanding sentences 어려운 문장을 번역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단어 설명하기.		Handouts
Closing	10'	Wrap Up Activity	학생들에게 책을 미리 읽어올 것을 주지시킨다. 수업 중에 하는 것은 본인이 미리 읽어 온 것을 공유하고 작문하기라는 것을 미리 주지시킴으로써 책을 미리 읽어오도록 유도하기.		

★Comprehension checkup questions

1. Why is that Jonas' parents think that their son is greatly honored? (p 84)
2. What do you think of the name designated Not-to-be-spoken(the highest degree of disgrace)? You may watch Chapter 18 (pp 175-176) in advance.
3. Can you see the 8 rules Jonas should keep in mind as a Receiver of Memory? What do you think the most absurd one out of eight? (p86- 87)
4. What do you think of the rule 7 out of 8 rules explained above? Can you guess what 'release' means in this novel? You may watch Chapter 18 (p179) in advance.
5. What is the most conspicuous difference in the training place for the Receiver of Memory? (p94)
6. Who is the man sitting in the chair beside the table in p94?
7. Can you describe the man mentioned above with the help of reading the expressions written in p95? What do Jonas and the man have in common?
8. Why does the man look older than he actually is?
9. What is the man's job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in p97?
10. What is the first memory the man is trying to transmit to Jonas(p97)?

★Demanding parts of several sentences

1. He was so completely, so thoroughly accustomed to courtesy within the community that the thought of asking another citizen an intimate question of calling someone's attention to an area of awkwardness was unnerving. (p87)
2. An intentioned lie, of course. But the reason for precision of language was to ensure that unintentional lies were never uttered. Did he understand that? They asked him. And he had. (p89)
3. There's much more. There's all that goes beyond. All that is Elsewhere. And all that goes back. and back and back. I received all of those, when I was selected. And here in this room. all alone, I re-experienced them again and again. It is how wisdom comes. And how we shape our future. (p98)

★Introduction ("I read this book!" Activity)

I think you will like this book because...

★Character analysis

I like the main character because...

I don't like the main character because...

★What I feel after reading : I feel that ...

올교련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초등학생)

번호	책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1	15소년표류기	철 베른	삼성출판사	2017
2	45kg	비르기트 솔리퍼 /유영미 역	푸른숲주니어	2012
3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 : 나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할까	최연구	살림출판사	2018
4	가족을 주문해 드립니다	한영미	살림어린이	2014
5	경제를 살린 땅콩 박사 조지 카버	이지영, 김도형	하늘기획	2013
6	공룡이 궁금하면 열어 봐!	케이트 데이너스	살림어린이	2016
7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주니어김영사	2012
8	과학 천재가 된 카이우스	헤지나 곤살베스	살림Friends	2010
9	교과서를 만든 철학자들	이수석	글담	2006
10	교양있는 우리아이를 위한 세계역사이야기 1~5권	수잔 와이즈 바우어	꼬마이실	2005
1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웅진지식하우스	2005
12	기억을 지워 주는 문방구	조규미	살림어린이	2014
13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리스	시공주니어	1991
14	피주머니 뱃속에 차고 계수나무에 간 달아놓고	장재화 글/이지은 그림	나라말	2006
15	나는야 코리안!	황인희, 이영원	물망초	2020
16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	2018
17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푸른숲주니어	2018
18	도덕을 위한 철학 통조림: 달콤한 맛	김용규	주니어김영사	2016
19	두동실 선생님의 우주여행	마우리 쿠나스	살림어린이	2014
20	딤스	버지니아M	샘터사	2011
21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톰 앵글버거	미래인	2017
22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	박상준	뜨인돌	2007
23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 (변우재 그림,피치마켓)	피치마켓	2020
24	만화 십계명	백금산	부흥과개혁사	2008
25	만화 유쾌한 심리학	박지영	파피에	2010
26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존. 번연 원작 최철규 그림	생명의말씀사	2019
27	만화의 신 데스카 오사무	김나정	이룸	2013

28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1999
29	미스터리 과학 카페	권은아	북트리거	2019
30	바다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코 사토시(고향옥 역)	청어람미디어	2009
31	방구석 미술관: 가볍고 편하게 시작하는	조원재	블랙피쉬	2018
32	방구석 박물관: 고대인의 물건에 담긴 기발한 세계사	제임스 M. 러셀	북트리거	2019
33	브이로그 조작사건	팀 콜린스	미래인	2017
34	빨간 머리 앤 (개정판)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 명작 01	루시 모드 몽고메리	은하수(은하수 미디어)	2017
35	빨강머리 앤 (양장) - TV 애니메이션 원화로 읽는 더모던 감성클래식02	루시 모드 몽고메리	더모던	2019
36	사과가 팔랑: 무럭무럭 혼자서도 잘 커요	길도형(박희주 그림)	장수하늘소	2012
37	어린이 삼한지 1~6	김정산	동아일보사	2008
38	생존을 건 온갖 생물들의 못 말리는 사투	다이나카 게이치 등	살림Friends	2009
39	선생님 얼굴 그리기	길도형	장수하늘소	2013
40	세계사를 한눈에 꿰뚫는 대단한 지리	팀마샬	비룡소	2020
41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계지도	재미있는 지리학회	북스토리	2004
42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이호백	재미마주	1998
43	소공녀 세라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 명작 02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은하수 (은하수미디어)	2017
44	수학 천재가 된 카이우스	헤지나 곤살베스	살림Friends	2010
45	슈퍼 거북	유철화 글그림	책읽는곰	2018
46	아브라함 링컨-오두막에서 자란 아이	어거스타 스티븐슨	리빙북	2018
47	안네의 일기	안네프랑크	지경사	2008
48	별 알폰스 도데 단편선 (양장)	알폰스 도데	비룡소	2013
49	알프스 소녀 하이디	요한나 슈피리	은하수 (은하수미디어)	2017
50	야밤의 공대생 만화	맹기완	뿌리와이파리	2017
51	어린이를 위한 그릿 - 재능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전지은	비즈니스북스	2017
52	어린이를 위한 바보 빅터-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	전지은	한국경제신문	2012
53	어린이를 위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꿈을 이루는 첫번째 습관 만들기	전지은	비즈니스북스	2019
54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정현채	보담	2020
55	엄마가 화났다	최숙희글그림	책읽는곰	2011
56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새퍼	을파소 (21세기북스)	2014

57	오메 할머니	오채	사계절	2016
58	오즈의 마법사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 명작 04	라이먼 프랭크 바움	은하수 (은하수미디어)	2017
59	올보 선생의 명품 인생	최관하	피톤치드	2018
60	앤서니 브라운이 그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글 /앤서니 브라운 그림	살림어린이	2009
61	작은 아씨들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 명작 03	루이자 메이 올콧	은하수 (은하수미디어)	2017
62	점과 선	노튼 저스터	오늘의책	2013
63	정약용 목민심서	곽은우 글	주니어김영사	2019
64	책가방을 메고 오늘도 께찮은 척	전진우	팜파스	2016
65	책상은 책상이다	페터 빅셀	위즈덤하우스	2018
66	청소년을 위한 개념 없음	김남준, 노경실	생명의말씀사	2017
67	청소년을 위한 고려유사	박영수	살림Friends	2009
68	청소년을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	한국경제신문사 (한경비피)	2009
69	콩나물 시루	양명호	징검다리	2010
70	키라의 감정학교 시리즈(5권)	최형미 글, 김혜연 그림	을파소 (21세기북스)	2019
71	틀려도 께찮아	마키타 신지/하세가와 토 모코 그림(유문조 역)	토토북	2006
72	파커 박사님, 화석이 뭐예요?	게리&메리 파커 / 서용연 옮김	꿈을이루는 사람들	2007
73	패션이 물리 천지	송진웅 외	이치	2008
74	플라톤 삼각형의 비밀 -집중력을 키워주는 수학동화	김성수	주니어김영사	2008
75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	레인 스미스	문학동네	2011
76	행복을 나르는 버스	맷 데 라 페냐/크리스티안 로빈슨 그림(김경미 역)	비룡소	2016

올교련 추천 도서 목록(중학생)

번호	책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1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조던 B. 피터슨	메이븐	2018
2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생명의 말씀사	2009
3	17세	이근미	미래인	2012
4	30가지 테마로 본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생명의 말씀사	2010
5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 나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할까	최연구	살림출판사	2018
6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홍춘욱	로크미디어	2019
7	5가지 사랑의 언어	개리 채프먼	생명의 말씀사	2010
8	MT 환경공학	박석순	장서가	2011
9	Q&A 세계사	김유석, 정부원	살림출판사	2010
10	개와 고양이에 관한 작은 세계사	이주은	파피에	2019
11	초판본 걸리버 여행기: 1726년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디자인 (무삭제 완역본)	조너선 스위프트	더스토리	2020
12	경제로 읽는 교양 세계사	오형규	글담	2016
13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오형규	한국문학사	2013
14	고대 문명의 탄생	정동연	살림출판사	2018
15	고맙다	서정인	규장	2013
16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	정소영, 이연임	도서출판 렉스	2020
17	골든 보이 덕 헌터의 모험	허레이쇼 앨저	평단문화사	2009
18	골든아워 1, 2권: 생과 사의 경계	이국종	흐름출판	2018
19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이형진	샘앤파커스	2020
20	과학 천재가 된 카이우스	헤지나 곤살베스	살림Friends	2010
21	교과서를 만든 철학자들	이수석	글담	2006
22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아름다운사람들	2018
23	그림의 힘 1, 2권	김선현	에이트포인트	2020
24	금요일 밤의 미스터리 클럽	구지라 도이치로	살림출판사	2010
25	김연아의 7분 드라마	김연아	중앙출판사	2010
26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리스	시공주니어	1991
27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유성호	21세기북스	2019
28	나니아 연대기 전권	c.s.루이스	시공주니어	2005
2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2

30	나의 아름다운 첫학기	이근미	물망초	2015
31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캐리 숙, 크리스 숙	포이에마	2008
32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푸른숲주니어	2018
33	내일은 내일에게	김선영	특별한서재	2017
34	너는 내 것이라	김지연	두란노	2020
35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닉 부이치치	두란노	2018
36	너는 시방 위험한 로봇이다	오은	살림출판사	2009
37	노동의 가치	최승노	프라이코노미스쿨	2015
38	닉 부이치치의 허그: 한계를 꺼안다	닉 부이치치	두란노	2010
39	다크호스: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들의 원칙	토드 로즈 등	21세기북스	2019
40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김정호	북오션	2016
41	데미안	헤르만 헤세	더스토리	2020
42	도덕을 위한 철학 통조림: 달콤한 맛	김용규	주니어김영사	2016
43	도산 안창호 평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판 (큰글씨 책)	이광수	부크크	2019
44	동성애 is	백상현	미래사	2015
45	로봇 선생님 가라사대	안동근	살림출판사	2009
46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툼 앵글버거	미래인	2017
47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등	살림출판사	2008
48	만화 십계명	백금산	부흥과개혁사	2014
49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세트	존. 번연 원작 최철규 그림	생명의 말씀사	2019
50	말그릇: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김윤나	카시오페아	2017
51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1999
52	미래의 금메달리스트에게	나디아 코마네치	미래인	2008
53	미스터리 과학 카페	권은아	북트리거	2019
54	방구석 미술관: 가볍고 편하게 시작하 는	조원재	블랙피쉬	2018
55	최용신의 외로운 진실	김명옥	책과나무	2017
56	보이는 경제 세계사	오형규	글담	2018
57	부족해도 괜찮아	이재욱	좋은씨앗	2012
58	북한 바로 알기	이용희	자유와생명	2018
59	브이로그 조작사건	팀 콜린스	미래인	2017
60	사라진 도시 사라진 아이들	낸시 파머	살림Friends	2010
61	살아있는 갈대	펠. s. 벅	길산	2014
62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철학 교과서, 나	김봉규 등	꿈결	2012
63	생존을 건 온갖 생물들의 못말리는 사투	다이냐카 게이치 등	살림Friends	2009
64	세계사를 한 눈에 꿰뚫는 대단한 지리	팀마샬	비룡소	2020

65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계지도	재미있는 지리학회	북스토리	2004
66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	조성준	21세기북스	2019
67	소년 프로파일러와 여중생 실종사건	박기복	행복한나무	2019
68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이야기	김정희	헤다	2018
69	수학 천재가 된 카이우스	헤지나 곤살베스	살림Friends	2010
70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오구리 히로시	바다출판사	2017
71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한홍	규장	2011
72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루이스	홍성사	2018
73	짜장면과 돌반지에 담긴 스토리 시장경제	한국경제교육연구회	북오션	2012
74	스트레스의 힘: 끊임없는 자극이 만드는 극적인 성장	켈리 맥고니걸	21세기북스	2020
75	아르주만드 뷰티살롱	이진	비룡소	2014
76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샤퍼	을파소 (21세기북스)	2014
77	영웅은 없었다	김한나	기파랑	2019
78	오늘 더 행복해	선&정혜영	홍성사	2014
79	완벽한 공부법: 모든 공부의 최고의 지침서	고영성 등	로크미디어	2017
80	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	박대곤	부키	2005
81	유쾌한 심리학	와타나베 요시유키, 사토 타츠야	베이직북스	2011
82	유튜브 컬처: 유튜브는 왜 항상 이기는가?	케빈 알로카	스타리치북스	2018
83	이 선생의 학교 폭력 평정기	고은우 등	양철북	2009
84	이 질그릇에도	미우라 아야꼬	지성문화사	2020
85	이상재 평전	전택부	범우사	2002
86	이슬람과 테러리즘 그 뿌리를 찾아서	마이크.A.가브리엘	글마당	2018
87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로버트 올리버	동서문화사	2008
88	자장면 경제학	오형규	좋은책만들기	2019
89	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콧	월북	2019
90	장난꾸러기 돼지들의 화학 피크닉	조 슈워츠	바다출판사	2019
91	점과 선	노튼 저스터	오늘의책	2013
92	제2차 세계대전	윤형호	살림	2019
93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로날드 D.게르슈테	미래의 창	2020
94	창조과학백과 세트	미국창조과학연구소	생명의 말씀사	2020
95	책가방을 메고 오늘도 관촬은 척	전진우	팜파스	2016
96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음악의 모든 것	니콜라 바버	예담	2004
97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청진기	곽상학	두란노서원	2018

98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권오현	쌤앤파커스	2018
99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손흥민	브레인스토어	2020
100	키라의 감정학교 시리즈(5권)	최형미 글, 김혜연 그림	을파소 (21세기북스)	2019
101	파란 눈의 한국 혼 혈버트	김동진	참좋은친구	2010
102	패션이 물리 천지	송진웅	이치	2008
103	펜더가 우는 밤	선자은	살림friends	2011
104	플라톤 삼각형의 비밀 -집중력을 키워주는 수학동화	김성수	주니어김영사	2008
105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1,2권	이호	자유인의숲	2020

올교련 추천 도서 목록(고등학생)

번호	책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1	10월 유신과 국제정치	이춘근	기파랑	2018
2	1984	조지오웰(이정서 역)	새움	2020
3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어떻게 국제정치를 통찰하고 예견할 것인가	로버트 D. 카플란 저 /이재규 역	김앤김북스	2019
4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피터 자이한(홍지수 역)	김앤김북스	2018
5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티머시 스나이더 (유강은역)	부키	2019
6	감정과 사회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본 한국사회	김왕배	한울아카데미	2019
7	감정 폭력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폭력 이야기	베르너 바르텐스저 /손희주역	걷는나무	2019
8	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	안재욱 편저	백년동안	2015
9	경쟁 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다	조윤희	백년동안	2020
10	경쟁은 아름답다	신중섭 편저	북앤피플	2014
11	고서 수집가의 기이한 책이야기	가지야마 도시유키 /이규원 역	북스피어	2017
12	구글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OKR	크리스티나 워드케 /박수성	한경비피	2019
1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최완규 역/장경덕 감수	시공사	2019
14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오세라비	도서출판 좁쌀한알	2018
15	공정적 일탈주의자 _내 안의 탁월한 말썽꾸러기 해방시키기	프란체스카 지노 지음/김정혜 옮김	한경비피	2019
16	기본소득 논란의 두얼굴	복거일 외	한국경제신문사	2017
17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김인섭	영림카디널	2016
18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김이석 역	자유기업원	2018
19	논어를 읽으면 사람이 보인다	이한우	해냄출판사	2018
20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초연결된 대중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제러미 하이먼즈, 헨리 팀스 공저/홍지수 역	비즈니스북스	2019
21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토드 부크홀츠 /박세연 역	21세기북스	2017

22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 강주현 역	김영사	2019
23	대송 제국 쇠망사	자오이/차혜정 역	위즈덤하우스	2018
24	대중의 반역	오르테가 이 가세트 저 /장선영 역	누멘	2019
25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	김재호	생각의 힘	2016
26	대한민국 건국이야기 1948	강규형,김용삼,남정욱,정경희	기파랑	2019
27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입니다	홍주현 저	지콜론북	2019
28	대한민국 승리의 길	류석춘	북앤피플	2019
29	대한제국 멸망사	H. B. 헬버트(신복룡 역)	집문당	2019
30	대한제국 실록 (실제 기록으로 읽는 구한말 역사)	황인희	유아이박스	2018
31	도덕감정론 및 국부론 요약	에이먼 버틀러 저 이성 규 역	윙크출판사	2018
32	도시, 공간, 생활 세계 -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김왕배	한울아카데미	2018
33	도교가 사랑한 천재들	조성관	열대림	2019
34	독립정신	이승만 저 / 박기봉 교 정	비봉출판사	2018
35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_역사는 화폐가 지배한다	미야자키 마사카쓰 지음 /송은애 옮김	한경비피	2019
36	동물농장	조지오웰(도정일 역)	민음사	2001
37	마음에 사심은 없다 _이나모리 가즈오	기타 야스토시/양준호	한경비피	2019
38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탄생	마일즈 웅거 저/박수철 역	미래의창	2019
39	모든 삶은 서툰다	에밀 졸라 외/이문필 역	베이직북스	2018
40	몽유병자들,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가	크리스토퍼 클라크 저/ 이재만 역	책과함께	2019
41	문화 대혁명 - 중국 인민의 역사 1962-1976	프랑크 디코터/고기탁 역	열린책들	2017
42	미국의 민주주의1	A. 토크빌/임효선,박지동역	한길사	2017
43	미국의 민주주의2	A. 토크빌/임효선,박지동역	한길사	2017
44	민주주의의 탄생 - 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이황직	아카넷	2018
45	박정희 바로보기 - 우리가 알아야할 9 가지 진실	송복 외	기파랑	2017
46	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	박기성	펜앤북스	2020
47	박태준 평전 - 세계 최고의 철강인	이대환	아시아	2016
48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외 5인	미래사	2019
49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이영훈 외 5인	미래사	2020
50	법 -자유주의 시리즈22	플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 /김정호 역	자유기업센터	2016

51	부국환경론	박석순	어문학사	2018
52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라이너 지텔만 저 /강영옥 역	봄빛서원	2019
53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루이기 진갈레스 /김석진, 박영준	한경비피	2018
54	사르트르의 미학	강충권 외	기파랑	2017
55	사익론 : 사익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현진권	백년동안	2015
56	사치와 자본주의	베르너 좀바르트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2017
57	산산조각 난 신	와타나베 기요시 /장성주 역	글항아리	2017
58	상식의 경제학	제임스고트니 외 /황수연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20
59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이영훈	백년동안	2018
60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	전성호	한경비피	2018
61	세뇌	벤샤피로/이남규역	기파랑	2018
62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2019
63	세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세계 질 서의 붕괴와 다가올 3개의 전쟁	피터 자이한 저 /홍지수 역	김앤김북스	2019
64	스무 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티나 실리그(이수경 역)	웅진지식하우스	2020
65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로렌슬레이터	에코의 서재	2011
66	시뮬라크르의 시대	박정자	기파랑	2019
67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윤태진	다연	2019
68	앙겔라 메르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매슈 크보트럽 /임지연 역	한국경제신문사	2017
69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어크로스	2018
70	언론인 춘원 이광수	정진석	기파랑	2017
71	에이트	이지성	차이정원	2019
72	여우가 되어라 마키아벨리가 전하는 강자와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17가 지 삶의 원칙	에리카 베너 저 /이영기 역	책읽는수요일	2018
73	역사 사용설명서: 인간은 역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마거릿 맥밀런	공존	2017
74	역사의 오른편 옳은편	벤 샤피로(노태정 역)	기파랑	2020
75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홍지수역)	한국경제신문	2016
76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시공사	2016
77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로렌스 W. 리드	지식발전소 경제 지식네트워크	2019
78	용어전쟁 : 정명(正名)운동	현진권 편저	북앤피플	2016
79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	박정자	기파랑	2020

	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80	우리안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배민	책과나무	2013
81	위대한 7인의 정치가	박동운	북앤피플	2019
82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저 /함규진 역	와이즈베리	2018
83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	박정자	기파랑	2018
84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도킨스	을유문화사	2009
85	이타적 유전자	매트리들리	사이언스북스	2010
86	익스트림 티밍	에이미 에드먼드슨 외 /오승민, 김정은	한경비피	2019
87	인간 폐지	C.S 루이스(이종태 역)	홍성사	2019
88	일이 인생을 단련한다 - 나를 단단하 게 성장시키며 일하는 법	니와 우이치로 / 김윤경	한경비피	2019
89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 수탈성의 진실	신용하	나남	2019
90	장거정 평전	주동론/이화승 역	더봄	2017
91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병태	나눔사	2020
92	전쟁의 기원 석기 시대로부터 알렉산 더 대왕의 시대까지	아더 햅릴 저/이춘근 역	북앤피플	2019
93	전태일 바로보기	류석춘, 박기성	비봉출판사	2017
94	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임건순	서해문집	2019
95	조지 오웰, 시대의 작가로 산다는 것	스테판 말테르/용경식 역	제3의 공간	2017
96	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	주대환	나무나무	2017
97	중국의 미래	데이비드 샴보 / 최지희	한경비피	2018
98	지금, 천천히 고종을 읽는 이유, 나라 는 어떻게 패망하는가	김용삼	백년동안	2020
99	지리의 복수 - 지리는 세계 각국에 어 떤 운명을 부여하는가?	로버트 카플란 /이순호 역	미지북스	2017
100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과 혐 오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미치코 가쿠타니 저 /정희진 해제/김영선 역	돌베개	2019
101	처형당한 엔지니어의 유령	로렌 그레이엄(최형섭 역)	역사인	2017
102	철이 금보다 비쌌을 때 충격과 망각의 경제사 이야기	알레산드로 지로도 저	까치글방	2016
103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	에이먼 버틀러 외	도서출판 리버티	2016
104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외 /이창신역	김영사	2019
105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오세라비,김소연,나연준	글통	2020
106	평권샘과 떠나는 우리 근현대사 여행	황인희	기파랑	2018
107	평등의 역습	이동관,윤창현,김대호 외	기파랑	2019
108	폭정(20세기의 스무가지 교훈)	티모시 스나이더 /조행복 역	열린책들	2017

109	프랑스혁명과 혁명의 심리학	귀스타브 르봉/정명진 역	부글북스	2018
110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에드먼드 버크/이태숙 역	한길사	2017
111	피터싱어의 실천윤리학 읽기	김성동	세창미디어	2018
112	피티와 함께 걷는 길 - 우리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의 기록	에릭 오그레이, 마크 다 고스티노 / 박선령	한경비피	2019
113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사 일본, 유럽을 만나다	신상목	뿌리와이파리	2019
114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신상목	뿌리와이파이	2017
115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	이병령	기파랑	2019
116	함께 산다는 것 세상의 작동 원리와 나의 위치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아브람 더 스반(한신갑, 이상직 공역)	현암사	2015
117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2	이영훈, 박지향	책세상	2006
118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	21세기북스	2013
119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와이즈베리	2017

감사합니다.



<http://thenature.or.kr/>